서울大學校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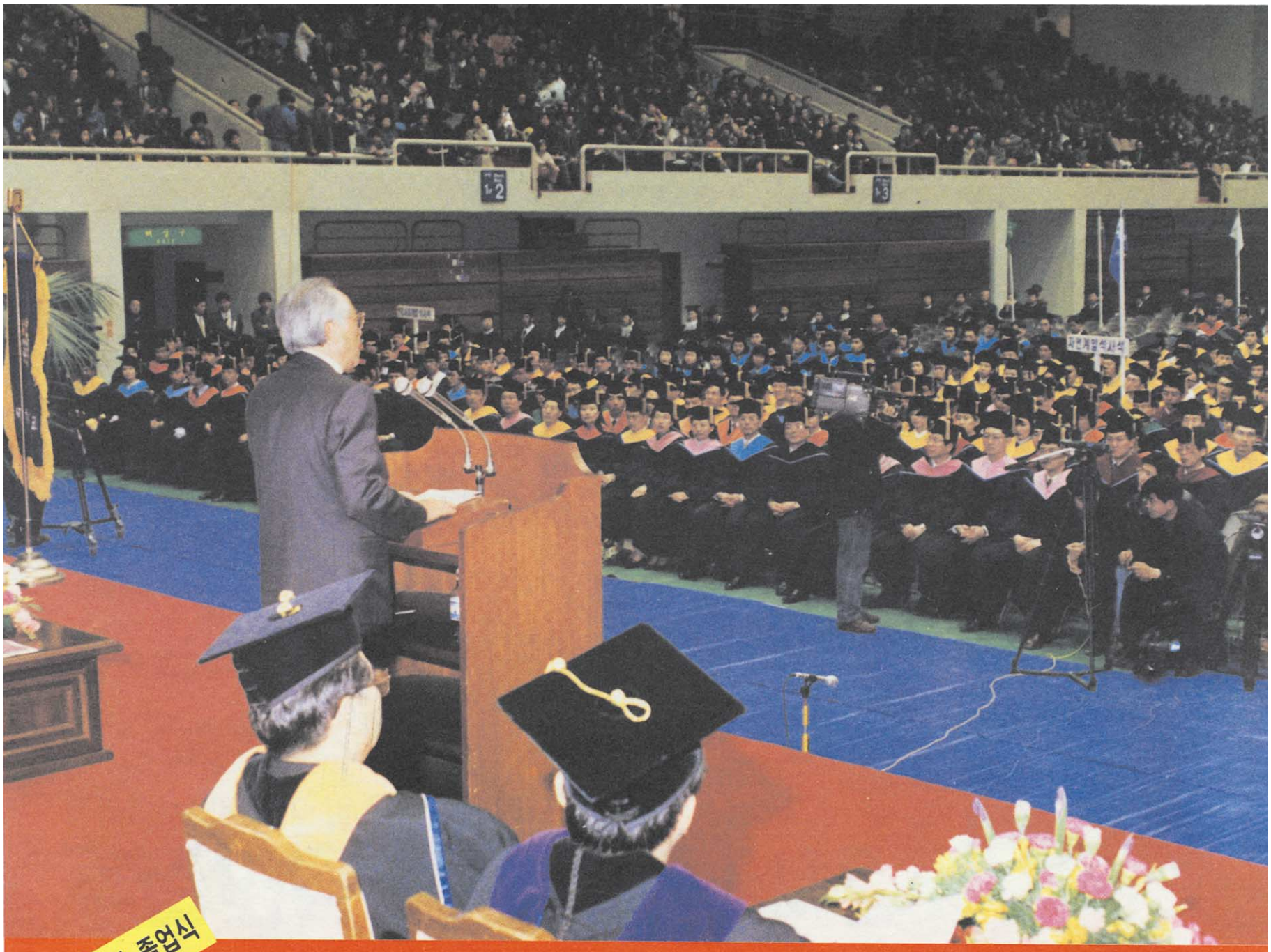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발 행 인 金在淳
편 집 인 鄭宗澤

발 행 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703-0755
인 쇄 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22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3월 15일



제51회 졸업식

국가와 사회의 棟樑으로 힘찬 첫걸음

관악춘추

서울대학교가 지난 26일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대는 학사 3천8백49명, 석사 1천8백27명, 박사 4백22명을 새로 배출했다. 새로운 人材의 배출을 서울대 동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경하하는 것 같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鮮于仲皓총장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21세기 한국건설의 개혁추진 세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 내외빈 2만여명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이지 서울대 동문들이 그동안 사회의 중추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했지만 창조성 및 시대적 사명감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鮮于총장의 식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시대적 사명감을 갖자

서울대 동문들이 정계·재계·관계·학계 등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능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의식이나 개혁성에 있어서는 좀더 분발을 촉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도 깔려있었다.

새로 학위를 받은 동문들은 이와같은 사회적 요청을 받아들여 21세기를 주도할 창조성과 개혁성을 더 한층 드높여야 할 것이다.

지성과 야성을 고루 갖춘 새 시대의 주도세력으로서 서울대의 국내외적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서울대의 「학위」가 외국 유수대학의 그것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靑〉

만든사람 · 논설위원: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宋鎭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金仁圭 편집주간:李世震 기자:安興燮, 金志妍, 盧志元

졸업축사

日常凡事 초월한 시야 가져야

먼저 22萬 同門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오늘 있음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과 크나큰 보람이 充滿하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敬虔한 마음으로 祈禱합니다.

사랑하는 卒業生 여러분!

『누가 祖國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祖國의 將來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겨레의 길잡이며 希望입니다. 希望이란 우리 앞에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希望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서울大人은 키가 커야 합니다. 日常凡事를 超越한 視野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울大人은 언제나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폭넓게, 보다 먼 앞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 위에 뜬 거품을 보지 말고 도도히 흐르는 물의 底流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集團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엘리트란 그 나라, 그 民族이 나가야 할 目標를 分明히 알고 있는 集團을 말합니다. 歷史의 偉大한 競爭속에서는 겨냥하는 目標를 알고 있는 國民만이 勝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民族의 運命은 두 개의 方向 사이를 요동해 왔습니다. 그 하나는 3·1運動 때나, 최근에는 88 Olympic 때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民族의 結束이었습니다. 온 民族이 해내려는 分明한 目標와 鬪志가 있었습니다. 意慾이 있었고, 效率도 높은 水準이었습니다. 그런 民族이련만 다른 한편으로는 될대로 되라는 虛無主義와 利己的 無秩序가 支配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興하고 衰하고는 바로 이 運命속에서 결정되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民族의 結束이야말로 周邊 強大國들의 틈바구니에서 祖國의 威勢發揚의 條件입니다. 사랑하는 後輩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의 運命을 걸머진 엘리트들입니다.

요즘 들어 知能指數-IQ보다 EQ, 즉 感性指數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습니다. 民族 앞에, 母校 앞에 無限責任을 질 줄아는 진정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IQ와 EQ뿐만 아니라 MQ(Moral Quotient) 즉 道德指數가 요청됩니다. 無秩序와 쇠퇴에 타락하지 않으며, 自慢과 冷笑의 습성에서 벗어나 꾸준한 自己改造의 노력으로 民族 全體의 道德 水準을 높여가는 일은 이 나라 엘리트들의 막중한 責務입니다. 한 나라에 道德的 秩序가 자리잡지 못하면 自由와 民主主義는 물론, 그 나라 全體의 힘이 弱化됨을 人類興亡의 歷史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後輩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祖國의 統一이 視野에 들어오기 시작한 時點입니다. 統一을 爲해서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다짐합시다. 自由가 박탈되고 民主主義가 억압된 祖國의 북녘 땅에 基本的 人權과 市民的 自由가 살아날 수 있게 합시다. 希望은 憎惡에 對抗하는 힘입니다. 分斷으로 인한 깊은 傷處의 記憶을 懷疑가 아니라 希望으로 統一합시다. 統一된 祖國, 떳떳한 힘있는 나라, 平和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의 祖國을 찾기 위해서 希望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統一偉業은 훌륭한 人材없이 成就될 수가 없습니다. 偉大한 人間이란 偉人이 되고자 決意하는 意志力이 있어 偉大해진다고 했습니다.

統一된 祖國이 人類 歷史上 한번은 國際的 責任을 堪當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結束합시다.

언제나 母校의 創學精神을 잊지 맙시다. 「眞理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母校란 언제나 慈愛로운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母校의 名譽를 위해서, 祖國의 榮光을 爲해서 誠實한 자세로 보다 멀리, 보다 높은 곳을 向하여 걸어갑시다.

서울大人에게 祝福있으라.

1997년 2월 26일
서울대총동창회장 金在淳

졸업식사

共同善 앞장서는 큰사람 되길

오늘 서울대학교 제51회 학위수여식을 여러분과 더불어 갖게 된 것을 우리 교수·교직원 일동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생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 대학에 입학한 이래, 짧게는 4년 길게는 10여년 동안의 각고면려 끝에 그 결실을 거두는 날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서 1946년 개교 이래 지난 반 세기 동안 20만여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고, 이들 우리 동문들은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중추로서, 우리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포부도 그러하거니와, 그동안의 우리 동문들의 빛나는 활동상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지대하다는 사실과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자로서의 책무가 막중함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현실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현대의 개인 중심 민주사회에서는 개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나머지 함께 정을 나누며 어울려 사는 共和의 정신이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는 「大學공부를 한 사람」 즉 「큰 사람(大人)」을 필요로 합니다. 「큰 사람」이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共同善의 원리에 따라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공동 문제 해결에 앞장 서고, 만에 하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현대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자칫 물질에 매몰되어 인격조차도 물건값으로 환산하고 당장의 이익이 보이면 장차의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조차도 돌보지 않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 「큰 사람」이란 사물에 부림을 당하지 않고 사물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私利와 實利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부디 「큰 사람」의 도량을 보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서울대 정신의 표상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바야흐로 국제화·세계화의 대세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 인류의 지구촌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남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원숙해지고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듯이, 한 사회 한 민족도 다른 사회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와 교류에서 「자기」를 키우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거기에 더 이상의 교류는 없으며 오직 同化와 종속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과 민족 문화를 계승 고양시킬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것을 키워야 한다』는 獨善의 아집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문화의 폭을 증대시켜 인류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 외국 사람들에게 졌던 빚을 갚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연의 탐구에서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나 사회 운영에 있어서나 고유 문화를 창달하여 인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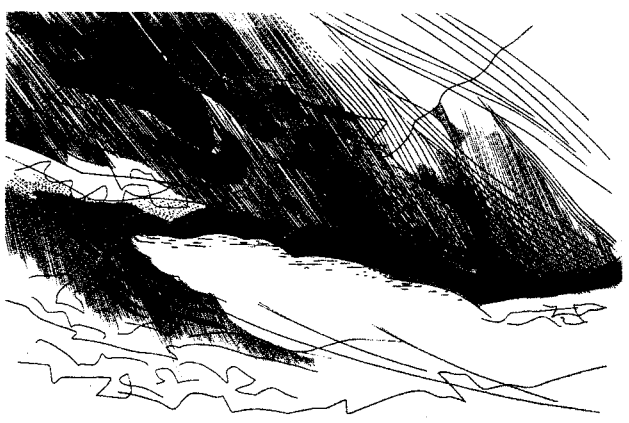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성과 진리, 교과서적 정의가 현실 사회에서도 마침내 실현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진할 때, 모교 서울대학교는 진실로 보람을 거두고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우리 대학의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이 영예로운 졸업을 계기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온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광이 곧 겨레의 영광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기대속에서 오늘 우리 대학의 학위수여식을 온 국민은 경사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생각함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세상 사람들의 준범이 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1997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총장 鮮于仲皓

미술작품

權寧淑 作



「여울-Ⅰ」 42×30㎝, Burin, 1987

〈작가 약력〉
△61년 미대 졸업
△64년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 판화과 수학
△68년 제1회 Buenos-Aires 국제판화 비엔날레
△72년 독일 뒤렌베르크대학 금속공예 수학
△78년 국제 판화 교류전
△86년 한일 교류 현대 판화전
△89년 한미 판화 교류전
△92년 서울미술대전
△93년 한국 판화 40년전
△개인전 5회
△前성신여대, 고려대 강사

주요 목차

동문을 찾아서 ····· 12면
대한변호사협회장 (咸正鎬)
추억의 창 ····· 13면
부산 가교사 시절을 회상하며 (金烈圭)
기획탐방 ····· 14면
팬시문화의 선도주자 ((株)아트박스)
화제의 동문 ····· 15면
지리학의 세계적 석학 (李廷冕)
모교소식 ····· 16면
제51회 학위수여식

장학금 1억9천6백여만원 지급

金회장 "서울대인으로서 깊고 넓은 생각 갖기를"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월 18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97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趙亨根(사회대 박사과정 1년)군을 비롯한 91명에게 1억1천3백5만4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金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사랑이 담긴 것인 만큼 금싸라기 같은 귀중한 정성으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오늘의 이 만남을 계기로 더 큰 자신감을 지니고 서울대인으로서 깊이 있고 넓은 생각을 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趙亨根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이런 자리를 통해 선배라는 존재가 그저 멀기만한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하고 『저희보다 앞선 시대에 모교에서 젊음을 보내면서 진리추구의 열정을 불태웠던 선배들의 사랑을 고맙게 여긴다』고 답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관악회 金道昶·白文基·孫京植·洪性大이사, 朴英俊·朴柱鐸감사, 동창회 金柱津부회장, 李吉女상임이사, 李淇鎔이사, 李基雄·方孝宣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姜信愛(음대 2년)양이 李潤炅(음대 2년)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신아리랑」 등의 축가를 선사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1백2명에게 8천3백54만1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97년도 1학기 장학금을 총 1백93명에게 1억9천6백59만5천5백원이 지급됐다.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義淑)=목련회 장학생 1명:1백20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楊銀淑)=5명:5백40만원 ▲법대동창회(회장 李奭熙)=낙산장학회 장학생 39명:3천4백44만3천5백원 ▲상대동창회(회장 張禮準)=향상장학회 장학생 30명:1천5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尹志炳)=1명:1백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李誠載)=1명:1백39만6천원 ▲치대동창회(회장 金讚淑)=4명:6백58만3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5백84만6천5백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2명:2백29만3천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5명:6백17만9천5백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重培)=5명:1백70만원

金柱津 아남그룹 회장
「특지장학금」 총 5억 출연

좌로부터 다섯번째 본회 金在淳회장, 아남그룹 金柱津회장.

아남그룹 회장인 金柱津(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2월 18일 본회를 방문, 金在淳회장에게 특지장학금으로 약정액 5억원중 미납분 4억원을 전달했다.

특지장학금 제도는 모교 재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싶으나 개인 장학법인 설립이 어려운 동문을 대신하여, 본인이 출연한 기금을 총동창회에서 대신 관리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학생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金동문은 특지장학금으로 지난해 10월 2일 1차로 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본보 논설위원에
南仲九동문 위촉

본회는 지난 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金在淳회장(본보 발행인)을 비롯한 논설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보 3·4월호 준비를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아일보 동경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朴紀正(68년 文理大卒)논설위원 후임으로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사진)을 선정, 위촉장을 수여했다.

〈燮〉

97년도 「정기총회」 개최안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997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97년 3월 22일(土) 오후 2시
■장 소 : 웨스틴 조선호텔(1층) 그랜드볼룸
■안 건 : ① 96년도 결산 건
② 기타
■회 비 : 2만원

* 폐회 후, 서울대인의 친목과 단합의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 장 金 在 淳

李吉女 특지장학금

4백7만3천여원 전달

李이사장(사진 右)이 蔡希周양 어머니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李吉女(57년 醫大卒·의대동창회장)의료법인 길병원 이사장은 지난 2월 18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7년도 제1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 3월 19일 李동문이 출연한 1억원을 그동안 본회에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蔡希周(간호학과 1년), 劉又禎(사회교육과 1년), 高明秀(기악과 1년)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7만3천5백원을 전달했다.

亞南 특지장학금

1백76만7천원 수여

金柱津회장(사진右)이 申惠盛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남그룹 金柱津(54년 法大 入·본회 부회장)회장은 지난 2월 18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7년도 제1학기 「아남 특지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2일 金동문이 약정금 5억원중 1차로 출연한 1억원을 그동안 본회에서 관리, 여기서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申惠盛(불문학과 4년)양, 朴賢培(경제학부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총 1백76만7천원을 수여했다.

장학생 申惠盛양은 『몇해 전부터 아남그룹 사원 자녀들에게 일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金柱津회장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4명에게 7백만원 지급

좌로부터 崔새롬, 許辛旭군, 洪이사장, 安琼俊, 趙洪奭군

洪性大(63년 文理大卒·관악회 이사)상산학원 이사장은 지난 2월 18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7년도 제1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2월 27일 洪동문이 출연한 2억원을 본회에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로 모교 신입생 崔새롬(법학과 1년), 安琼俊(경제학부 1년)군에게 각각 2백만원을, 許辛旭(경영학과 3년), 趙洪奭(전기공학부 3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洪性大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공을 살려 사회의 동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총리에 高 建동문

내각·청와대에 13명 새로 등용

高 建국무총리

金泳三(51년 文理大卒)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국무총리에 高 建(60년 文理大卒)명지대총장을 임명하고 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姜慶植(61년 法大卒)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내무부 장관에 姜雲太(72년 文理大卒)前농림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崔相曄(61년 法大卒)前법제처장, 문화체육부 장관에 宋泰鎬(72년 文理大卒)총리비서실장, 통상산업부 장관에 林昌烈(66년 商大卒)재정경제원 차관, 건설교통부 장관에 李桓均(64년 法大卒)총리행조실장, 과학기술처 장관에 權肅一(58년 文理大卒)모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 田允喆(65년 法大卒)前수산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에 鄭鎬根(최고경영자과정 33기)前합참의장을 임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金瑢泰(58년 法大卒)前내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姜慶植경제부총리

金瑢泰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에 金仁浩(66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장, 총무수석비서관에 柳在浩(국가정책과정 23기)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스위스 지부

회원 6명 본회이사로 추천 의뢰

앞줄 좌로부터 宣畯英대사, 全회장, 朴庚緖, 李鍾郁동문.

스위스支部同窓會(회장 全命濟)는 지난 12월 20일 베른 소재 金海宣대사의 자택에서 20여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다.

또한 1월 16일에는 제네바 국제기구대표 대사관저에서 全命濟회장, 宣畯英대사 등 2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개최했다.

한편 全命濟(48년 文理大卒·前UNCTAD근무)회장(사진)이 지난 2월 5일 본회를 방문해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全회장은 『인구 6백만의 조그만 나라 스위스지만 베른과 제네바에 2개의 공관과 2명의 대사가 있다』고 소개하고 동창회 활동을 설명했다.

全회장은 스위스에 대표부 직원, 유학생 등 50여명의 동문이 있으며 동창회보를 매우 반갑게 받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본인을 비롯한 金海宣(57년 文理大卒·스위스대사), 宣畯英(62년 法大卒·국제기구특명전권대사), 河泰圭(59년 文理大卒·쥬리히대교수), 朴庚緖(62년 文理大卒·WCC국장), 李鍾郁(76년 醫大卒·WHO국장)동문을 총동창회 이사로 추천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모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려를 해주는 것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모교 동문과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가주 지부

李名相 신임회장 선출

남가주支部同窓會(회장 朴炳起)는 지난 2월 15일 LA시내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 全熙澤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李名相(63년 文理大卒)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張東恩(61년 音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 협력, 영광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는 지부가 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다』고말했다.

제주 지부

金英昊회장 선임

제주支部同窓會(회장 金炳贊)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내 데일리뷔페에서 정기총회 겸 제주출신 모교 신입생 축하연을 개최했다.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玄林鍾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金회장은 『모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재학하는 동안 학문연마와 인격도야에 힘써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 결산보고에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신임회장에 金英昊(58년 藥大卒·제주도청 공직자윤리위원장)동문을 선출하고 금년 신입생 47명에게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벽시계와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燮)

가정대 동창회

새 회장에 李義淑동문

앞줄 좌로부터 李恩英학장, 都南姬부회장, 李義淑회장.

家政大學同窓會(목련회 회장 李仁子)는 지난 18일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가정학 50년사」를 배포하고 발전기금 모금 현황보고를 통해 교직원, 학부모들의 출연금을 합쳐 총3억2천여만원의 기금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義淑(60년卒·한국오에이시스대표이사)동문을 선출하고 3년간 동창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李仁子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신대원 동창회

신문학과와 통합 추진

지난 20일 정총을 열고 李濟薰회장을 재선임 했다.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李濟薰)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嚴廷植서강대교수가 「현대철학과 정보화 사회」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同會는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李濟薰회장을 연임토록 하고 부회장에 金彦鎬·金圭七동문, 이사에 權鎔大동문을 추가 선임했다.

한편 신문학과동창회와 통합, 오는 5월경에 「언론정보학 동창회(가칭) 전체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대학원 동창회

4월 18일 정총 개최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최근 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96년도 결산심의를 마친 임원들은 97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석사과정에 있는 4명의 재학생으로 정하고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97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4월 18일 오후6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약대 동창회

모범 동문에게 상장 전달

약대동창회는 10여명의 모범동문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25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7년도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온 10여명의 동문이 동창회장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沈應基, 金榮浩, 文昌奎, 鄭之碩, 韓允宗동문이 총동창회장상을 받았고 李鎭錟, 李碩九, 李貞子, 權 博동문 등 10명의 회원이 약대동창회장상을 받았다.

또한 신입회원 중 제약학과의 金賢政, 약학과의 朴珍先동문이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으며, 李在元, 李相得동문을 비롯한 6명의 회원은 박사학위 축하패를 받았다.

한편 同會는 이날 올해 모교에 입학한 韓連植동문의 장남 승훈군 등 4명의 회원 자녀에게 축하 기념품을 전달하고 朴萬基학장에게 상반기 모교 활동 지원금 1백50만원을 전달했다.

96년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심의, 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마친 同會는 명부제작을 맡았던 (주)온라인에어전시측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3월 중에 새로 제작된 회원명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문의 전화 701-3456) 〈志〉

본회 사무처 회원부 차장에 沈應燮동문
林明奎간사·盧志元기자 임용

본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7일자로 회원부 차장에 沈應燮동문을 임용했다.

沈동문은 75년 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 78년 KAIST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지도단 실장, 교육훈련단 단장, 기획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자로 회원부 간사에 林明奎동문, 편집부 기자에 盧志元동문을 임용했다. 林간사는 86년 인문대 서어서문학과에 입학, 서어서문학과 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91년 인문대 종교학과에 입학한 盧기자와 함께 지난달 26일 졸업했다. 새로 임용된 3명의 동문은 일정기간 수습을 거치게 된다.

본회는 사무처 주요부서 직원을 동문들로 임용,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沈應燮차장

林明奎간사

盧志元기자

의대 동창회

含春棋聖 선발전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2월 16일 모교 제1교수회의실에서 「'97 含春棋聖 선발전」을 가졌다.

A조(1, 2급), B조(3, 4급), C조(5급 이하)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바둑대회에는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高在熙사범의 명국 해설이 곁들여졌다.

접전 끝에 金潞經동문이 97년도 함춘기성에 등극했으며, 「다음 한 수 알아맞추기」는 李夏吉, 朴興吉, 金鳳泰, 金法成, 李炳洲동문이 정답을 맞춰 기념품을 받았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1위: 金潞經, 2위: 黃淳宰, 3위: 李撤浩, 4위: 兪 建동문

B조－1위: 金癸泰, 2위: 李栽興, 3위: 康承浩, 4위: 金性洙동문

C조－1위: 金鳳泰, 2위: 李國賢, 3위: 李甲淳, 4위: 李枝馥동문

수학과

金夏鎭회장 선임

수학과동창회(회장 尹沃榮)는 최근 세종호텔 해금강홀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金夏鎭(아주대교수)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 선임은 회장에 일임했다.

또한 4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4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학과

金永久 신임회장 선출

사회복지학과동창회(회장 白秀雄)는 지난 2월 13일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겸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同會는 金永久(제일엘트라(주)대표이사)동문을 신임회장에 선출하고 부회장에 李昶浩·金元鍾·李逢鉉·金輝冠·李容標동문, 감사에 全鳳命동문, 총무에 陳在文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신임 金회장(사진左)이 白秀雄(사진右)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리대 5회

새 회장에 崔起東동문

문리대5동기회인 東崇會(회장 李圭元)는 최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崔起東(한림원회장)동문(사진)을 회장에 선출하고 부회장에 姜漢永(前우석대총장)·宋基完(이영(주)회장)·高允錫(前모교부총장)동문, 간사에 金敏洙(前고려대교수)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同會의 발전을 위해서 尹河珽(前외무부차관)·金顯男(과학기술재단이사장)동문 등 1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대 87회

회갑기념 문집 발간

법대87동기회(회장 印貞憲)는 최근 회갑기념 문집 「삶과 더불어 정의와 더불어 60년」을 발간했다.

4백여쪽에 이르는 이 문집은 회원들의 시·수필·기행·시론·논문 등 다양한 작품과 역대회장단, 개개인 사진과 약력, 그리고 설문조사 등이 곁들여져 동기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며졌다.

지리교육과

창립50주년 기념 좌담회 가져

지리교육과동창회(회장 金燦三)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黃載璣사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만남은 과거의 인연 뿐만아니라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교육과 5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는 40년대 졸업생에서 90년대 졸업생까지 참여해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 지리교육과의 모습을 설계했다.

항공우주공학과

신임 韓萬燮회장 추대

항공우주공학과동창회(회장 洪在鶴)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했다.

회원들은 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 모금에 관해 논의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韓萬燮(삼성항공 연구소장)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 李元馥, 林達淵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철학과

부회장 9명 추가로 선임

철학과동창회(회장 曺圭河)는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曺圭河회장을 재추대하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李啓謐, 李楠永부회장 외에 9명의 부회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元)

느티나무광장

金 昌 悅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뛰어나는 人才들이…"

지난 가을 우리는 모교의 개교 50년을 기념했다.

때 맞추어 신문에서는, 서울대학교 50년을 평가하는 논의가 제법 활발했다. 서울대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서울대 망국론, 폐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모교에 대한 상반된 평가 제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의 위상이나,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비중, 그 사이 이루어낸 학문적 성과에 비추어, 서울대학교 50년의 功過를 따져 봄은 의당한 일이다. 그러나, 왜 이토록 한가지 50년에 대한 毁譽가 극에서 극으로까지 갈렸을까 생각하는 중에, 문득 모교의 교가 한 구절이 떠오른다.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더욱 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40여년 전, 부산 피난지 가교사 입학식에서 처음 교가를 익히고 불렀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도, 좀 멋적은 노랫말인 것은 틀림이 없다. 「뛰어나는 인재들」의 自負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 모여들어」는 아무래도 自閉的이다.

사실과도 다르다. 금년만 해도, 합격자를 다른 대학에 빼앗겨, 신입생 결원이 1백명 가깝다고 하지 않은가. 게다가 인재가 모여듦을 노래하되, 인재를 배출하는 포부는 느껴지지를 않는다. 그 탓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수재는 서울대학교를 통과한다는 비아냥이 그럴듯하게 회자된다. 여기 서울대 예찬론과 망국론의 갈림점이 있다.

인재 모으기보다 배출에 힘써야

要는, 통과와 배출이다. 좋은 原石에서 찬란한 금강석을 찾아내 다듬는 노력이다. 玉을 갈고 닦아 구슬을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문제인 것이다. 제2반세기를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지향은 이 점에 모아져야 한다.

바로 여기 「더욱 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의 길이 있다. 그 길은 곧장 「더욱 더욱 융성하는 대한민국」으로 통한다. 우리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하여 할 일, 그 일의 요체 또한 자명하다 할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고함

과거 명성만으로 미래 보장 안돼

申永澈(61년 文理大卒)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장

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원동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경쟁상대는 그 기업을 활력있게 만들어준다. 종업원들은 경쟁상대를 향하여 강한 승부욕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생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은 다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큰 성취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원리는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얼마전 수능시험을 마친 상위성적의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서울대학교와 다른 사립대학에 복수지원하여 양쪽에 모두 합격했을 때, 서울대학교를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20%를 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대단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승부욕·소속감 절실

또한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실시한 세계 대학들의 우수성을 비교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모교가 세계 20위권 안에도 끼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어떤 관점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 순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세계 유수대학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사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교의 성장속도는 그들에 비해서 다소나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한 경쟁자 나와야

그러나 요즘같은 대학의 춘추전국시대에 있어서 사립대학들의 성장은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바람직한 현상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선의의 경쟁심으로 작용하여 우리 서울대학교를 항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모교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명성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줄 수 있는 참다운 경쟁상대가 속속 나와 우리를 자극하고 또한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동정

수 상

▲**金容稷**(58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최근 제38회 「3·1 문화상」 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을 받음.

▲**李炳勳**(66년 醫大卒·소아과 의원장)= 최근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최고의 영예인 평생회원 인정서와 평생회원 자격 카드를 받음.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교수)= 지난 2월 5일 우리나라 양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논문집 「한국양형론」으로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을 받음.

▲**李秉基**(74년 工大卒·모교교수)= 지난 2월 4일 美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회원 최고등급인 펠로로 선정됨.

▲**梁彰洙**(74년 法大卒·모교교수)= 지난 1월 31일 한국법학원이 제정한 「법학논문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함.

▲**李珉和**(76년 工大卒·메디슨 사장)=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겸 제1회 기술경영인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부문상」을 받음.

▲**尹淨老**(77년 社會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 최근 학생들로부터 강의 잘하는 교수로 인정받아 「우수강의상」을 받음.

▲**金賢坤**(78년 音大卒·모교교수)= 복지시설을 찾아 활발한 자선공연을 펼친 공으로 최근 한국음악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96년 국민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함.

▲**周相勳**(82년 工大卒·포항산업과학연구원)= 지난 2월 1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철과 비철재료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美재료금속학회의 「금속제련상」 수상자로 선정됨.

이동·선임

▲**黃哲秀**(51년 師大卒·前민주평통자문회의)= 최근 퇴임교원 친목단체인 「三樂會」 회장에 취임함.

▲**金濬浩**(56년 法大卒·코리아나투어여행사회장)= 최근 (주)DEPO 회장에 취임함. (주소: 중구 북전동 27-1 도림빌딩 5층. 전화: 285-0251)

▲**崔泳一**(56년 獸醫大卒·한국와이즈멘협의회 사무처장)= 최근 YMCA와 더불어 세계난민구호 등 미개발국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와이즈멘클럽 국제의원에 선임됨.

▲**金在浩**(57년 師大卒·카톨릭대교수)= 지난 3월 1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장에 재선임됨.

▲**李升雨**(57년 商大卒·나경상사 대표이사)= 최근 국제로터리 3650지구(서울강북) 지명위원회 98년도 총재에 지명됐으며 재경 대구중학교동창회장에 선임됨.

▲**金容振**(57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 지난 1월 31일 열린 한국음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이사장에 선출됨.

▲**洪性也**(58년 家政大卒·인하대교수)= 최근 한국조리과학회 회장에 취임함.

▲**河榮植**(58년 文理大卒·경기대교수)= 지난 2월 27일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장에 취임함.

▲**李炳淅**(58년 法大卒·前농림부차관)= 지난 1월 29일 열린 한국사료협회 97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재추대됨.

▲**琴承鎬**(64년 師大卒·국제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최근 1급으로 승진,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됨.

▲**表相基**(65년 工大卒·상지상사 대표)= 지난 2월 17일 열린 한국무역대리점협회(AFTAK)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趙銀子**(65년 家政大卒·성신여대교수)= 최근 성신여대 생활과학대학 학장에 취임함.

▲**朴應七**(65년 文理大卒·KBS라디오정보센터편집위원)= 최근 미래정경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김.

▲**崔東一**(66년 工大卒·유공가스부사장)= 최근 (주)유공가스 사장으로 승진함.

▲**高興吉**(6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 최근 李會昌신한국당 고문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徐健二**(66년 文理大卒·우즈베키스탄대사)= 최근 호치민 총영사에 임명됨.

▲**玄勝一**(66년 文理大卒·국민대총장)= 지난 2월 12일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임됨.

▲**柳寧夏**(66년 法大卒·중소기업은행 관리부장)= 최근 중소기업은행 영업1부장으로 전보.

▲**金宗善**(66년 醫大卒·모교교수)= 최근 제3차 두개저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金裕采**(67년 工大卒·前공업진흥청장)= 최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초대총장에 취임함.

▲**金徹洙**(67년 工大卒·변리사)= 최근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6대 회장에 선출됨.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 내정됨.

▲**李揆弘**(67년 法大卒·서울고

"지방·해외 동문 화합에 힘쓸 터"

신임 李義淑 가정대 동창회장

지난 18일 열린 가정대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李義淑(60년 家政大卒·한국오에이시스대표이사)동문(사진)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늦게나마 동창회를 위해 뜻있는 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회원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의 활동은.

『대학졸업 후, 대부분 가정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밖에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회를 5년간 이끌었고 현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정대동창회 부회장을 맡아보면서 최근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향후의 계획과 목표는.

『역대 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더욱 알차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회원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과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방과 해외 거주 회원들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동문에게 한 말씀.

『남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늘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회장은 부군 具滋斗 LG유통부회장과의 사이에 2남2녀를 두었으며, 장남 具本天(87년 社會大卒:KDI연구원), 李晟銀(92년 社會大卒)부부를 비롯해 차녀 具惠善(85년 美大卒), 맏사위 沈玄周(78년 工大卒·숭실대교수)동문 등이 서울대 일가를 이루고 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에 주력"

서울대학동창 여성대표協 朴嬢實회장

최근 서울시 소재 대학(29개)을 졸업한 여성동문들의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대학동창여성대표협의회」가 창립됐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朴嬢實(60년 醫大卒·前보사부장관)동문(사진)은 『앞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취지는.

『지난 96년 8월 서울시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서울시대학동창 여성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졸업생 중 많은 여성동문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에 협의회를 구성해 무엇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임원구성은.

『유승미(연세대 여동문회장)·임경자(한국외대총동문회 부회장)회원이 부회장을, 김효숙(건국대총동문회 부회장)·문희경(국민대총동문회 부회장)회원이 총무를 맡아 同會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4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여고동창 대표협의회와 연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여성인력 자원의 활용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극대화는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로 제기돼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각자의 능력에 걸맞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서 베트남 무료진료사업을 펼치는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실시했던 朴동문은 현재 모교 의대동창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등을 맡고 있다.

〈志〉

법 부장판사)=최근 서울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에 취임함.

▲陳秀一(67년 醫大卒·원자력병원 의무부원장)=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원자력병원 제5대 병원장에 선임됨.

▲趙源一(68년 法大卒·외무부 외교정책실장)=최근 駐베트남 대사에 임명됨.

▲朱元泰(68년 法大卒·한국외환은행법규실장)=최근 한국외환은행 남산지점장으로 전보.

▲李弘揆(68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국립보건원 특수질환부장(보건연구관)에 겸임 발령받음.

▲愼克範(68년 敎大院卒·한국교원대교수)=지난 1월 31일 교육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장에 선출됨.

▲孫智烈(69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최근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취임함.

▲洪 哲(69년 醫大卒·안과의원장)=최근 대한안과학회 서울지부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됨.

▲閔相基(70년 商大卒·모교교수)=최근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됨.

▲車昌溢(70년 醫大卒·경희대교수)=최근 이과연구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피선됨.

▲朴三圭(70년 行大院卒·前공업진흥청장)=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함.

▲朴杉沃(72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역학회 정총에서 2년 임기의 제7대 회장에 선출됨.

▲孫基植(72년 法大卒·의정부지원장)=최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취임함.

▲朴聖哲(73년 法大卒·서울지법 부장판사)=최근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취임함.

▲張閏基(73년 法大卒·대구지법 부장판사)=최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취임함.

▲徐遵鎬(73년 商大卒·서강대교수)=최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임명됨.

▲朴相哲(73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국립보건원 퇴행성질환과장(보건연구관)에 겸임 발령받음.

▲朴在甲(73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李廷旭(73년 行大院卒·前한국통신 네트워크본부장)=최근 한국통신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兌一(74년 工大卒·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최근 한국지역학회 부회장에 선임됨.

▲黃健豪(74년 商大卒·대우증권상무)=최근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됨.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교수)=지난 2월 1일 서교호텔에서 열린 97년도 정기총회에서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회장에 선출됨.

▲鄭淳午(78년 農大卒·한남대교수)=최근 한국지역학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宰源(82년 工大卒·대신정보통신이사)=지난 2월 15일 대신정보통신 사장으로 승진함.

▲李東奭(82년 自然大卒·인제대교수)=최근 인제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함.

▲安文宅(84년 大學院卒·증권감독원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최근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됨.

▲崔鉉烈(3기 AMP·엔케이그룹 회장)=최근 대한농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李來炘(25기 AMP·현대건설 사장)=최근 현대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安福鉉(41기 AMP·삼성항공 정공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한국광학기기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됨.

행사·출간

▲李潤子(46년 京城師範卒·전 국주부교실 중앙회장·前 국회의원)=金胤德정무2장관의 초청으로 열린 「전직 여성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 참석, 97년도 여성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함.

▲白樂晥(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인당장학회이사장·本會副會長)=지난 2월 4일 총79명의 학생에게 총3천4백1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사장)=최근 安光吉 통상산업부 장관을 초청, 「97년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산시책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가짐.

▲高俊植(55년 師大卒·당곡중학교장)=지난 2월 18일 정년퇴임식을 가짐.

▲朴永淑(55년 齒大卒·사전치과병원장)=최근 30년동안 수집한 규방문화재 6백28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함.

▲柳光烈(56년 師大卒·前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최근 세계기독교신령협회 행사 참석차 루마니아를 방문함.

▲金元主(57년 法大卒·경북대교수·한국환경법학회장)=지난 2월 22일 尹瑞成 환경부차관, 許南吾청와대비서관, 趙弘植변호사를 초청해 학술발표회를 가짐.

▲權英子(59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정치분야에 있어서 남녀동반자 관계를 위한 IPU특별회의」에 참석함.

▲兪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 상근부회장)=지난 2월 21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축산시장 개방 대비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사단법인 한국축산학회 심포지엄에서 「개방축산길을 자주 축산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

▲鄭秉天(60년 法大卒·새현대학원 이사장)=지난 3월 3일 마포구 도화동 소재 새현대유치원 강당에서 신입생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함.

▲金貞順(60년 醫大卒·한국에이즈연맹회장·모교교수)=최근 에이즈 감염자 조직으로 오해받는 등 어려움이 많아 연맹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으로 바꿈.

▲崔秉常(61년 美大卒·이화여대교수)=최근 미술전공자들의 학위논문 작성법을 설명한 「미술과 연구」(보성각刊)를 펴냄.

▲李正子(63년 文理大卒·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회장)=지난 2월 4일 열린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함.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짐.(주소: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8층. 전화: 3705-6280)

▲高學均(64년 農大卒·모교교수·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장)=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5회 전국농학계교수 심포지엄을 개최함.

▲崔鴻圭(68년 敎大院卒·중앙대교수·사랑의 녹색운동본부회장)=최근 사랑의 녹색운동본부 서울시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독도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기념강연회를 가짐.

▲金光俊(69년 法大卒·신경영연구소장)=최근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회사」와 「개인」 양자가

〈12면에 계속〉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한상규 군(88년 社會大卒)·박진희 양=3월 22일 오후 12시30분.

*최동원 군(94년 社會大卒)·최선희 양=3월 23일 오전 11시.

*함준상 군(90년 農生大卒)·윤미정 양=3월 23일 오후 12시30분.

*윤 권 군(89년 師大卒)·임은주 양=3월 23일 오후 2시.

*이성섭 군(90년 人文大卒)·김승희 양=3월 28일 오후 1시.

*김진운 군(90년 工大卒)·김상미 양=3월 29일 오후 12시30분.

*최연옥 군(93년 社會大卒)·신지연 양=3월 29일 오후 3시30분.

*박형규 군(93년 農生大卒)·정유진 양=3월 30일 오후 2시.

*백대현 군(96년 經營大卒)·양윤희 양(96년 師大卒)=4월 5일 오전 11시.

*이헌배 군(91년 自然大卒)·윤은영 양=4월 5일 오후 2시.

*이민경 군(94년 農生大卒)·박은아 양=4월 5일 오후 3시30분.

*최형근 군(94년 經大院卒)·이미경 양=4월 6일 오후 12시30분.

*김동표 군(92년 社會大卒)·박혜원 양=4월 6일 오후 2시.

*송두일 군(86년 經營大卒)·이응경 양=4월 11일 오후 12시30분.

*조상현 군(95년 工大卒)·김윤정 양=4월 12일 오전 11시.

*김만희 군(89년 自然大卒)·김은영 양=4월 12일 오후 12시30분.

*이승용 군(94년 自然大卒)·김기화 양=4월 12일 오후 2시.

*강승열 군(87년 自然大卒)·임진아 양=4월 12일 오후 3시30분.

*신중철 군(89년 經營大卒)·이미령 양=4월 13일 오후 2시.

*김선엽 군(88년 美大卒)·박선미 양=4월 13일 오후 3시30분.

〈11면에 이어〉

갖는 본질적 문제들을 철저히 현실에 입각해 재조명한 회사 생활지침서 「회사를 살아가는 지혜」(태일출판사刊)를 펴냄.

▲朴忕祥(69년 法大卒·청주지검 차장검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58. 전화:0341-272-2341)

▲李在衡(70년 法大卒·서울남부지청 형사1부장)=최근 변호사 개업. (전화:677-2552)

▲金明錫(72년 文理大卒·셰프라인 사장)=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소비재박람회에 참가함.

▲梁惠淑(72년 音大卒·플룻연주가)=최근 불가리아 소피아 문화궁정 홀에서 「MOZART FLUTE CONCERTOS」 CD를 출간함.

▲鄭英善(73년 家政大卒·한국다문화연구소장)=2월 23일부터 3월 16일 매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한국다문화연구소에서 다도강좌를 개최함.

▲徐維憲(73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뇌의 신비를 소개한 저서 「두뇌 장수학」(민 음 사刊)을 펴냄.

▲安京洙(74년 工大卒·한국후지쯔대표이사)=지난 2월 13일 「건설업종에 있어서의 정보시스템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金賢坤(78년 音大卒·모교교수)=지난 2월 16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라리넷 독주회를 가짐.

▲金亨成(83년 法大卒·서울지법 의정부지원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의정부시 가능동 368-1 법전빌딩 405호. 전화:0351-871-0700)

▲朴鍾衍(83년 法大卒·서울고법판사)=최근 변호사 개업. (주소: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전화:0591-54-3737)

▲朴聖燮(83년 醫大卒·서울백병원)=최근 독일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에 관한 협동연구를 마치고 귀국함.

▲李銘哲(83년 醫大卒·충북대교수)=최근 관절 연골 재생에 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 UCSD로 장기연수를 떠남.

▲沈準用(86년 法大卒·서울지검 서부지청검사)=최근 변호사 개업. (전화:587-3011)

▲金希珍(87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2월 24일 열린 이화여대 졸업식에서 피아노 전공으로는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음.

▲鄭元基(95년 工大卒·변리사)=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덕성빌딩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함.

▲沈甲輔(3기 AMP·삼익물산사장)=최근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고객만족 행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함.

▲崔烈坤(6기 ACAD·미래교육연구회장·前서울시교육감)=최근 초·중·고교 교장 및 교사연수회에서 「21세기 지식사회시대를 대비한 교육개혁」을 주제로 강연함.

〈정리=金志妍기자〉

동문을 찾아서

咸正鎬 대한변호사협회장

"무료변론·법률구조 확대 등 신뢰 회복에 주력"

개인의 힘보다는 함께 하는 힘이 더 강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법조계의 최일선에 선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함께 실현해보자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이다.

지난 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咸正鎬(57년 法大卒)동문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당면과제 등을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은.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유당시절부터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성토하고 독재정부의 인권탄압에 맞서는 등 빛나는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자랑하는 변협의 대표로서 수행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에 흠이 가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할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과 역점사업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사회, 즉 사회전반에 걸쳐 법치주의 사회로 조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이 행정기관, 공공단체, 대기업 등에 취업해 법치주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직역도 확대하고 인권옹호도 생활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법률시장의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량 배출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수용할만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회원들이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때문에 전문화교육을 서둘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정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견해는.

『검찰조직이 행정부에 속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으로 인해 예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는 어느 때나 확고하다고 보지만 그 감독자들이 정치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중립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검사 각자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계의 당면과제는.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아니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정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훌륭하게 일해 왔으나 몇사람의 회원들이 과다한 보수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탈선하는 등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회원의 탈선을 단속하고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과 법률구조 확대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燮〉

추억의 窓

인제대 교수
金烈圭(54년 文理大卒)

1952년 부산 구덕산에 있던 문리과대학 전경.

「피난 서울대 유적」 기념비 세우고 싶어

그것은 6·25전쟁이 터진 다음 해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의 나무토막 간판이 판자집 가교사에 내걸린 것은…

가교사래야 부산시 서대신동의 민등서니 산비탈에 세워진 사무실 하나, 그건 아무래도 달랑하니 내버려진 폐옥의 꼴이었다. 우린 누구나 동숭동 본관 건물 따위를 연상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어중이 떠중이 피난대학이 다 모여서 얼거맞춘 「전시연합대학」에서 일학년을 마치고 갓 2학년에 들어선 참이었다.

강의실 그런 것은 없었다.

땅바닥에 가마니 몇 장, 그게 당시만 해도 「대학의 대학」으로 사뭇 기고만장하던 「문리대」라는 상아탑이었으니까.

종교학과의 신…교수의 라틴어 입문, 그게 나의 첫 강의였다.

교수께서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미처 열명도 못될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마니 바닥에 무릎 꿇게 했다. 기도가 계속되는 그 잠깐 동안에도 남녘 한낮의 봄 햇살은 우리들 정수리에서 후끈댔다.

부산에서 별로 멀지 않은 전선에서 전쟁의 불길이 이글대고 있을 즈음이었다.

피난 문리대의 첫 강의.

지금도 나는 대학강의라면 그 때 그 순간을 「강의의 강의」로 줄곧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 우린 정치에 휘말리기도 했다.

저 악명 높은 「4사5입개헌」 때문이었다. 어느 날, 몇 학생이 바로 전날 거리에 나서서 반대시위행진을 한 것도 미처 모른채, 나는 등교를 했다.

가교사 입구, 좁디좁은 마을안 고샅의 휘어진 목을 꺾어서 들어서는데 난데 없이 누군가가 사납게 목덜미를 나꿔챘다. 그리곤 그 바로 옆집 문안으로 쳐박아 넣었다.

『이름을 대!』 그리곤 사복의 괴한들은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명부같은 것과 대조했다. 이를테면 데모 주동자를 색출하는 수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건 물론 구태여 문리대만의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과대학은 몰라도 바로 지척에 있던 법대와 사범대 교우들까지 그날, 그러니까 주동자 색출이 있던 바로 그날 오후내내 군사교육이란 명분 하에서 구덕산 수원지 가까운 숲속에 연금당해 있었기 때문이다.

가마니짝 강의와 데모 저지용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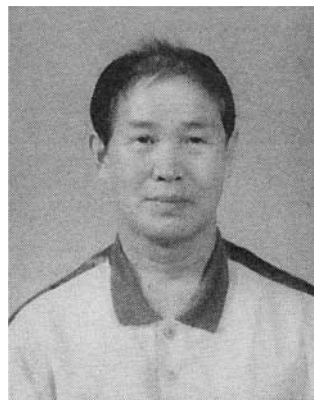
어느 쪽이 보다 더 뜨거운 학문의 열정, 지성의 열정의 현장이었는지를 가리는 따위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두 광경은 그 뒤 줄곧 이 땅의 대학이 지녀야했던 두 개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구덕산 그 자리에 「피난 서울대학교 유적」이라고 비석 하나쯤 세우고 싶다.

명예교수칼럼

수의사 활동영역 확장돼

權宗國명예교수



인류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수의학의 이용분야는 급격히 확장됐다. 근래 선진국에서는 수의사의 활동분야를 말하는 여러가지 낱말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우주공간에서 동물실험에 참여하는 astronau-vet.,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zoo-vet., 물에 사는 동물을 치료하는 hydro-vet., 새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avian-vet., 건강한 표준실험 동물을 길러내는 Lab. animal-vet. 등의 표현이 생겨나서 수의사들의 활동영역이 차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과학 발전에 일조

또 근래에는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생겨 생명과학이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연구도 시험관 동물연구가 10여년 앞서서 성공했으며, 유전자 조작연구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수의과대학에서 수퍼마우스를 탄생시킨 바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멀지 않아서 코끼리만큼 큰 돼지의 생산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같이 수의학 분야의 일이 많아지자 선진국들의 수의학 교육연한은 매우 길어지고 있다. 90년 전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필라델피아 수의과대학의 신입생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총 모집인원 60명중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석사학위 소지자 11명, 나머지는 모두 학사학위 소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전문의 자격까지 획득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수의학의 현황은 어떠한가? 한마을의 몇 집에서 한마리씩 기르던 소나 개가 병이 나면 죽기 전에 잡아서 동리 사람들 영양보충하게 되니 수의사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소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천대하고 수의사들은 「백정의 사촌」 정도로 생각했을터이니 수의학이란 사회의 그늘에서 명맥을 유지하기에 바빴을 것이다.

교육연한 연장 환영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생활정도가 향상되어 고기와 우유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니 이젠 수가 많아진만큼 병이 생기게 되어 수의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96년 1월 8일 정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의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이 결정됐으며, 96년 8월 23일에는 수의과대학의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는 대통령令이 공포됐다. 위 두가지 사항은 수의학 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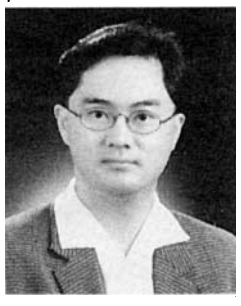
팬시문화의 선도주자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로 「신세대 시장」석권

"2001년 2천억원대 종합문화그룹으로 도약할 터"

동문기업탐방

② (주)아트박스



소매가 기준 매출이 5백2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세간의 신선한 충격속에 고속성장을 구가해온 팬시 전문업체 (주)아트박스는 지난 84년 한국의 3대 대형 출판사의 하나인 (주)삼성출판사의 패밀리그룹의 일원으로 시작했다.

86년 분리 독립한 아트박스는 도서출판 삼성 대표이사, (주)서문어패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曺石鉉(87년 社會大卒)동문(사진)이 95년 회사를 인수, 96년 10월 제4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曺동문은 인수와 함께 곧바로 조직, 체계정비에 들어가 전년 동기대비 평균 35~40%의 매출신장을 기록, 지난 2, 3년간의 신장 둔화를 떨치고 취임 1년만에 성장세로 전환시켰다.

직원 발전위한 투자 확대

원래 曺동문의 꿈은 정치가였다.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모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같이 유학길에 나섰던 아내 金京和씨가 공부하던 경영학에 흥미를 느껴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 동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

「젊고 감각적인 신세대 기업인」으로 통하는 曺동문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여름 휴가때 유럽 배낭여행을 실시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오페라,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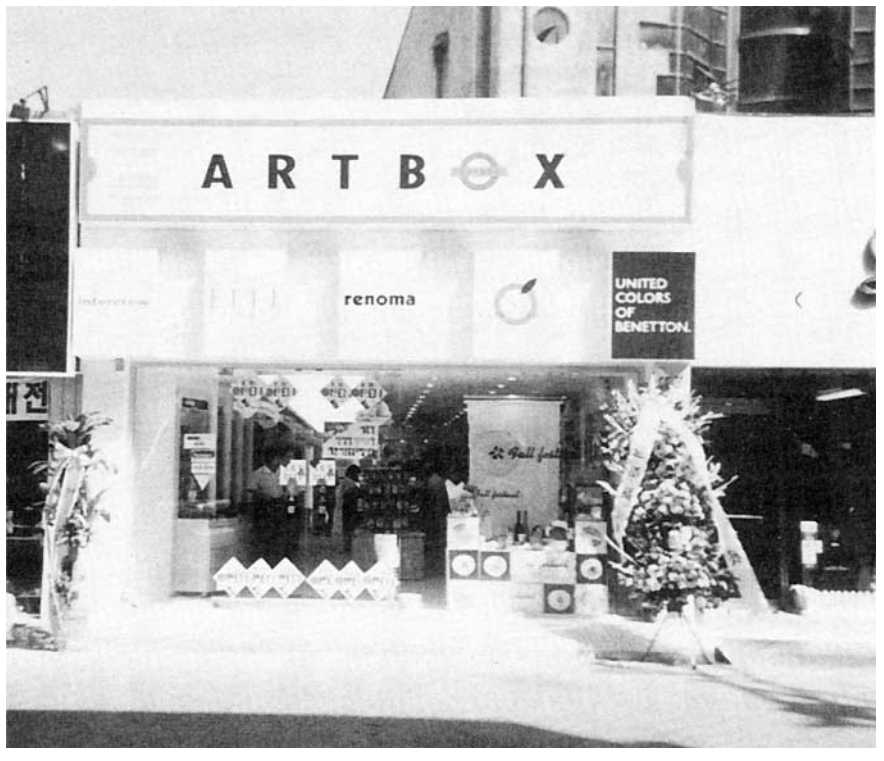
또한 직원들의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커리큘럼을 설정,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지원자에 한해 매킨토시와 영어, 일어 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성 강한 색상으로 승부

(주)아트박스는 노트, 앨범, 다이어리, 필기구 등을 포함한 문구류와 가방, 지갑, 장갑, 수건, 인형, 모자 등의 봉제품류 그리고 거울, 액자, 시계, 컵, 우산, 인테리어 및 생활소품과 쵸콜렛, 사탕 등을 망라하는 신세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연간 2백여가지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개성이 강한 디자인 및 색상을 보강해 상품의 고급화는 물론 독창적인 시장개발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통일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팬시업계에서 유일하게 홀세일을 하지 않고 프렌차이즈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본사와 체인점만의 단일한 유통경로를 유지해 문구와 GIFT의 독자적인 시장 구축 및 유통경로의 차별화를 두었으며, 문구—GIFT—패션이라는 범주에서 신세대 YOUNG MARKET의 차별적인 접근으로 독창적인 팬시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96년 10월에 바뀐 로고. 원은 미래지향적인 생활문화를 제안하는 기업정신을, 사각형은 도약을 꿈꾸는 진보적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국내외 체인점 1백여개

국내 개발 브랜드로서 해외수출까지 해 국익에 일조하고 있는 (주)아트박스는 84년 1호점 종로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1백여개의 국내 체인점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9개국에 30여개의 프렌차이즈 매장이 성업중이다.

(주)아트박스는 올해 안에 국내에 20여개의 신규지점을 개점하고 해외 체인망을 늘리는 동시에 패션, 생활잡화와 관련된 아이템 개발을 통해 토털브랜드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서문어패럴과 (주)아트박스 두 개 회사로 매출 4백40억원을 달성, 연평균 3백50%의 신장률로 2001년에는 2천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주)아트박스는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면서 보다 양질의 팬시문화를 제공하는 한편 종합 문화그룹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젊고 패기 넘치는 회사이다.

〈志〉

문화단신

新刊

■ 東北亞시대와 漢字·漢字敎育
－南廣祐 著

원로 국어학자인 南廣祐(50년 文理大卒·한국어문회 이사장)동문이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의 한자교육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서를 펴냈다.

南동문은 이 책에서 한자교육의 부활과 국한혼용체제를 교육문화정책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한·중·일의 공통상용 한자안을 제시했다.〈한국어문교육연구회刊·값20,000원〉

■ 참 시작을 위한 참 이야기
－참시작을 위한 모임 편

법대 88동기회가 「참시작을 위한 모임」을 결성, 지난해 12월 회갑기념문집을 펴냈다.

단기 4288년에 입학, 어느덧 耳順의 나이에 접해 펴낸 이번 문집속에는 수필, 수상, 시, 시론, 논문 등 70여편의 다양한 인생편린들이 담겨 있다.〈삶과 꿈刊·값10,000원〉

■ 경영세계 100選 여행
－李東喆 著

청주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는 李東喆(86년 大學院卒)동문이 경영학 이론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기업 이야기와 접목,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했다.

경영의 기초, 경영·정보관리, 전략·국제경영 등으로 나눠 최신 정보관련 개념들도 폭넓게 담았다.〈한올출판사刊·값8,000원〉

公演

■ 바이올린 듀오콘서트
－3월 23일 예술의 전당

감리회 신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朱一葉(77년 音大卒)동문이 삼육대 음악교육과 교수인 유병혜씨와 함께 바이올린 콘서트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르토크, 비오티,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기자〉

외재의 동문

지리학의 세계적 석학 李廷冕교수

"좁은 국토라도 적절히 이용하면 낙원"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이 된 시대에 지리학의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李廷冕(51년 師大卒·美유타주립대 교수)동문을 만나보았다.

『미지의 사람과 자연환경에 접함으로써 그 지역의 제반사항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지리학의 매력』이라 말하는 李동문은 특히 「토지이용」과 「항공 사진 판독법」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리학의 발전방향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리학 연구에 있어 보다 풍부하고 신속한 자료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리학은 컴퓨터를 이용해 관계되는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의 역할은.

『현대지리학은 하나의 세계(Globalization)·정보사회 형성에 기여합니다. 인간은 토지 위에 사는 존재로서 인간과 토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토지를 조사 이용하는데 차원높은 접근을 위해서 항공사진과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게 되며 이 기법은 GIS와 연결되어 지리학에 새로운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학의 당면과제는.

『身土不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고유의 멋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국토는 협소하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토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좁은 국토도 넓은 국토로 느끼도록 이용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가 좁다고 말하기에 앞서 주어진 토지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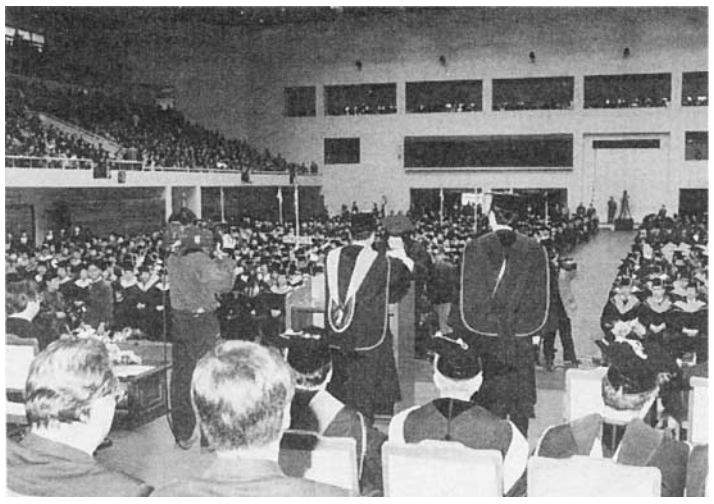
『저서 「고대 한반도 이주민의 일본 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오는 98년 탈고할 예정이고, 「미국 중서부 산간지방에 남긴 한국인의 발자취」에 대한 보완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의 한국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상」 집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李동문은 학문 연구를 위해 시작했던 중국어, 일본어, 불어, 영어 등 4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인이민사편찬위원장으로 교포의 이민상황과 활동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교포들에게 미국사회에서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元〉

모교소식

제51회 학위수여식 총 6천98명 졸업



모교(총장 鮮于仲皓)는 지난 26일 제51회 학위수여식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 宋斗灝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安秉永교육부장관, 모교 전임 尹天柱·權彝赫·李賢宰·金鍾云총장과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총장 식사, 회장 축사 요지 3면 게재)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8백49명, 석사 1천8백27명, 박사 4백22명 등 총 6천9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단과대별 수석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이 거행됐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김보경-안 신 △사회대:이종은-홍일표 △자연대:이호웅-반효경 △가정대:박윤조-박시라 △간호대:박영미-이윤경 △경영대:정창용-이승윤 △공대:이충현-김동광 △농생대:진희현-신민선 △미대:고운산-권오복 △법대:홍지영-양귀환 △사대:김지영-하영미 △수의대:구혜정-최은화 △약대:정승혜-김정훈 △음대:문희선-민동원 △의대:오도연-김재광 △치대:고정우-백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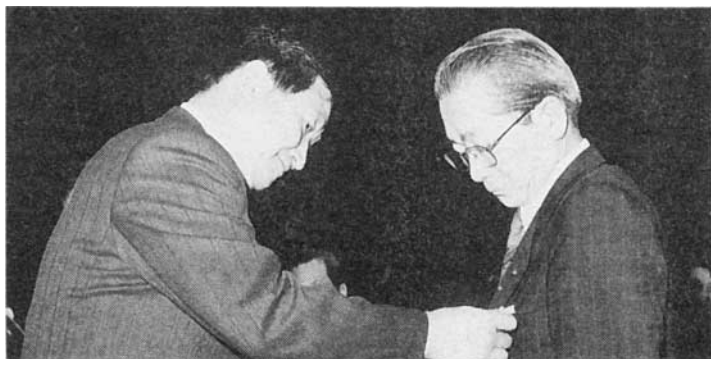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인 高雲山(미대 동양화과)군이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10개 국립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교수 출강·학점 상호 인정

지난 2월 24일 모교를 비롯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들은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국내 국립대학간 교육 및 연구분야 교류를 통해 학문 발전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빠르면 97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될 이번 협정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교수·학생교류, 학점 상호인정, 정보·자료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추진, 기자재·시설물 공동사용 등을 합의했다.

宋洛憲교수 등 11명 정년퇴임



鮮于총장(사진左)이 崔熙仁교수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전수했다.

지난 28일 교수 11명의 정년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宋洛憲교수(영문학), 曺大京교수(심리학), 林元子교수(의류학), 田溶元교수(자원공학), 朴容憲교수(교육학), 田相範교수(영어교육), 崔熙仁교수(수의학), 徐鉉洙교수(수의학), 李慶淑교수(성악), 石世一교수(의학), 金圭植교수(치의학) (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수의대 동물병원 개원

수의과대학(학장 崔熙仁)은 지난 2월 17일 부속동물병원 개원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뒤편에 위치한 동물병원은 개, 고양이, 가금류, 어류 등 작은 동물 위주로 진료하며,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3시까지, 토요일은 정오까지이다.

「가정대학」 개명 생활과학대학으로

모교는 지난 3월 1일자로 「가정대학」을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를 통합해서 소비자학 전공, 아동가족학 전공으로 학과를 분리시켰다.

또한 사회과학대학의 「신문학과」를 「언론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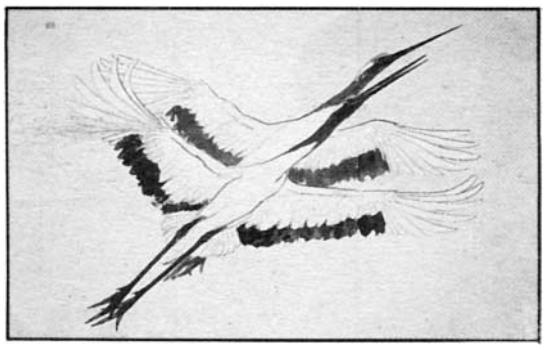
공대학장에 李長茂교수 취임

지난 2월 1일자로 공과대학장에 기계설계학과 李長茂(사진)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67년 모교를 졸업, IOWA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6년 모교에 부임한 후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樓〉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제228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3월 15일 【21】

2월호를 읽고

단과대·지역별 특집기사 게재를…

회보가 227호를 기록하는 동안 날로 새롭고 알찬 내용이 많아지고 지면도 더욱 산뜻해졌다.

다만 총동창회 규모가 너무 거대군단(?)이 되어 회장단의 활동이나 동정을 자주 게재하고 있는데, 회수를 대폭 줄이고 매호마다 단과대학별 또는 주요 지역별로 동창회의 현황이나 활동 등을 특집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각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신진, 중견, 노장 동문들을 발굴해 실어 주고, 자질구레한 신변잡기적인 기사는 한페이지에 모아 기사의 비중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 **吳赫柱(60년 文理大卒)한국조세신문사 회장**

다양한 분야 전문인 적극 활용해야

편집진의 과감한 개방을 요망한다. 회보의 논설위원을 현재의 18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회 각 분야의 권위와 식견이 있는 사람을 과감히 보강해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편집방향에 있어 젊은 지성인이 미래지향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 윤리, 도덕의 기본을 올바르게 가르쳐 우리 것에 대한 튼튼한 바탕 위에서 서구문화를 접하고 올바른 지성탐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며, 인성과 품성교육에 필요한 내실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安京鎭(75년 環大院卒)'99 강원동계아시아대회 조직委 사무총장**

뜨락

養兒錄 有感

玄溫剛(66년 家政大卒)인하대 교수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에 사는 친구네 집에 갔다올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딸아이의 전화다. 『아이 추워, 엄마 나 좀 안아 줘!』 밖에서 막 돌아온 둘째 딸애가 얼음장같은 손을 가슴속으로 들이민다. 『여보, 나 무슨 옷 입고 갈까?』 남편이 외출할 때면 의례하는 소리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가슴과 손길을 요구한다. 왜 그럴까? 가정에서의 엄마의 역할은 무엇일까?

엄격하고 절제된 교육 필요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대명사격인 「胎」는 「긍휼」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자기희생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속에 새겨진 엄마의 가슴은 항상 따뜻하고 온유하고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구약성서를 보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한 여호와」 「태에서 나옴으로 내게 품기운 너희여!」 등과 같이 하나님을 어머니에 견주어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엄마들도 가슴이 항상 따뜻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을까?

며칠전 우연히 조선시대의 육아일기(養兒錄)를 방영하고 있는 TV프로를 관심있게 본 적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부모의 태교와 선한 마음가짐을 중요시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비단옷을 안 입히는 등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과 엄격하고 절제된 교육을 실천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양의 경우에도 심리학자 에릭슨은 어머니의 역할에 있어서 사랑에 의한 아동의 신뢰감 형성을 강조하는 한편, 필요한 제한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는 고상한 명분 아래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부 어머니들이 전체 어머니의 모습을 본래의 그것으로 부터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진실된 엄마의 모습 아쉽다

「한보사태」 「떡값」 「뇌물성」 「의혹」 「배후」……. 「마약」 「흉악범」 「어린이 유괴」 「가출」 「겁없는 아이들」…….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말들이다. 「참된 생명」 「진정한 사랑」의 상징인 엄마의 가슴, 아내의 기도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참되고 진실한 엄마와 아내의 모습이 새삼 아쉽다. 부패한 사회, 타락한 남편, 방종한 아이들을 다함께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과 눈물로 훈육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엄마의 가슴을 만들어야 하겠다.

마케팅은 전쟁이다

郭靜美(86년 人文大卒)존슨&존슨 마케팅부

소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하게 되고 그 요구들에 부응하고자 하는 제품들이 홍수같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그 경쟁은 치열하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접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광고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속에 꿈틀대는 아이디어

난 내 생활 자체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주 흥미진진하다. 내겐 마케팅 일 자체가 고난도의 전쟁놀이(놀이라고 붙이기엔 너무 진지하지만)같다. 내가 맡은 제품이 전국 구석 구석에 분포되어, 내가 만든 전략과 모양새대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을 때, 더군다나 그 수많은 경쟁제품을 제치고 소비자의 구매까지 연결될 때, 난 승리의 쾌감을 느낀다. 내가 만든 전략과 전술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마케팅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바로 내 생활속에서 나온다. 특히, 생활용품 마케팅은 나 자신이 바로 소비자이자 구매자이기 때문이다.

난 슈퍼에서나 화장품 코너에서 좀 별난 소비자가 된다. 가격부터 패키지, 진열상태, 판촉행사, 광고, 소비자의 행동을 살피느라 쇼핑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내 제품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놓인다.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나라 슈퍼나 매장을 둘러보게 되고, 역시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전술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제품을 볼 때마다 묘한 기쁨을 느낀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는 제품이 적어도 몇 년의 고민끝에 나온 産物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입할 것이다. 심지어는 제품명도 모르고 사용할지 모른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소비자가 왕」이란 말이 있듯이 그 왕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머리 싸움이 있는지…. 나도 그 마음 편한 「왕」이 부러울 때가 가끔 있다.

소비자 위한 머리 싸움 필처

하지만 마케팅 전쟁을 이미 경험한 이상, 난 그 마음 편한 왕으로 절대로 되돌아 갈 수 없고, 그 전쟁의 묘미를 쉽게 잊을 수가 없음을 잘 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시장점유율 1포인트를 더 얻기 위해 내 제품을 무장시켜 뜨거운 전쟁터로 내보낸다. 그리고는 흥분과 기대속에서 그 전쟁을 지켜본다.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사 3천8백49명·석사 1천8백27명·박사 4백22명

모교 9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6천98명(학사 3천8백49명, 석사 1천8백27명, 박사 4백22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3만3천7백80명(준회원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 회 원
인 문 대 학	284	6,867
사회과학대학	332	8,694
자연과학대학	307	6,912
가 정 대 학	91	2,656
간 호 대 학	65	2,677
경 영 대 학	199	3,981
공 과 대 학	913	29,661
농업생명과학대학	434	16,232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06	3,700
법 과 대 학	196	12,826
사 범 대 학	357	20,855
상 과 대 학	—	6,723
수 의 과 대 학	47	1,658
약 학 대 학	79	5,153
음 악 대 학	145	5,429
의 과 대 학	186	8,936
치 과 대 학	108	4,899
대 학 원	2,077	48,828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보 건 대 학 원	55	2,124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45	3,304
환 경 대 학 원	72	1,391
소 계	6,097	215,363
준 회 원		13,338
(단기 과정)		5,079
총 계		233,780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병조 안희제 이승희 이지영 임지오 정명선 정세라 정의열 정진희 최규백 최유진 최혜립 김영실 김준우 이민영 전재승 류남혁 박희일 김충환 민영근 박원식 이 현 정길수 이수영 임종민

▲중어중문학과

김보경 김소미 안현숙 정수연 안홍근 김지현 김혜연 김영환 양성부 오준교 김병록 김수영 이호기 전지영 최동진 옥윤길 장창현 백경한

▲영어영문학과

고상희 권수진 김수은 김승연 김은형 김지혜 박정연 오윤숙 오진희 장지은 정하경 정현창 조계연 최영민 최정운 권혜진 김경미 김인호 이은이 정인수 한호동 조세환 김성현 남태환 박정훈 박찬호

▲불어불문학과

김현숙 남상기 문하영 변재은 심지원 유석경 육근혜 이기봉 이승주 이여진 이용구 임수정 정승훈 하정순 한연수 유 영 이루내 김수진 김정연 백승일 이혜정 송윤주 고길수 권병준 노도철 조익노 구재욱 김용섭 박영서 송민근 송창진 신철식 이성원 이준재 김진옥 최승환

▲독어독문학과

김은수 류종호 윤선일 장은정 진유미 황정원 박수미 서유형 강경수 김용선 류성완 박상준 우인호 이상훈 김정민 박용호 성상기 신승호 임정섭 전기흥 정경주 황보준 김경현 김동엽 남인준

▲노어노문학과

김나혜 김연경 서미현 정하경 김지연 김미애 남진희 윤 건 강희성 김영일 박성훈 윤영현 정부영 문상규 임보경 최성호 양진기 장민석

▲서어서문학과

유경숙 이상주 전영선 김정옥 김용진 황준석 김종철 김태호 박일규 오기남 임명규

▲언어학과

강희조 김자원 박소영 이영문 이영주 최진영 하정원 홍지수 배노필 오동욱 김어진 김환수 류명준 박종민 이정구 홍종락

▲국사학과

강호선 김승룡 김범석 김상우 이현우 김용정 남기상 이강한 박채수 서영석 송용구 정성학 한영해 황보연

▲동양사학과

김강인 조영헌 홍정아 박현희 강태웅 김범성 강승확 김형준 이승준 김철룡 이명진 김효소

▲서양사학과

강현주 김예성 문희경 윤상욱 이제승 조정필 권형우 김영래 김웅가 이동규 정원석 최규현 서용덕

▲철학과

김보현 김훈회 박석희 윤희조 이 현 정대훈 조보라미 홍재호 김은희 나진억 리영호 전만준 고영균 박세민 송인용 김대식 김윤창 오화세 윤경호 임헌규 호경업

▲종교학과

김효준 전형욱 기승우 안선홍 안 신 안연희 김준기 노지원 민경환 박종천 이현선 강성운 김형찬 이강현 임민구 하주용 최창석

▲미학과

곽은영 김채연 박상필 신운화 유주현 이세연 이수연 이은영 조윤수 한희원 남혜아 김성균 이민정 경재현 엄윤성 박정훈 이석연 이완범 조만수

▲고고미술사학과

권경은 김경운 김윤아 이 건 이호상 전형은 최리선 강인모 이기리 이혜진 강문철 황 빈 이우상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구종원 김희래 송혜정 조현구 김도완 김 웅 서현수 정효명 홍탁균 이정철 김재식 류증희 박석용 고홍석 김정부 김찬동 류연중 송호석 장성현 김진화 조용준 전상훈

▲외교학과

김동욱 박정은 신승준 이규영 이주환 최원경 김장호 박영환 안세진 이주일 전경준 조현상 권오왕 김준우 양준호 이만희 정일배 민경호 장성준 정동욱 김신일

▲경제학과

강찬우 강창민 권영민 김규일 김대진 김정환 김호중 문수진 민세진 박태호 배준범 서규섭 송헌재 신우재 신자은 염수현 우기열 우정석 윤정모 이태훈 조명환 진 강 홍재화 김성원 김정환 김한국 노태선 민경원 박병훈 손계준 손영동 양세련 이상목 이창선 이철호 정상도 주용석 최송락 최용석 최홍준 김명철 김준용 김태휘 김형록 김 훈 방진욱 송성훈 신상훈 심성희 안성배 엄경태 이근우 이문욱 이용범 전병욱 정경운 조기제 조병노 조성만 진양수 천민근 하병제 한인재 강성훈 강승구 구명훈 권상철 김기용 김병수 김영노 김재홍 김종민 김종수 류현기 박광인 박용현 심재열 원영준 이경식 이병창 이삼호 이승일 이진한 이형렬 임동필 임승일 장성원 장원영 정성민 정재기 조용하 조준상 황상규 나영철

▲국제경제학과

곽노경 김덕과 김보경 김인숙 김현정 박진호 오성익 이영란 이윤경 이현주 김현구 박명기 송미정 심은수 강종호 곽상언 박기찬 박찬기 성욱제 윤성희 이철희 정준섭 최경배 최진우 홍준표 김준형 고희주 김경수 김광석 김성수 김재영 나원주 남상준 박종원 박종희 방상진 백상훈 서명환 서태용 송준혁 원홍필 이성규 이승욱 정동민 정래철 조계황 진동필 천광혁 한정욱 김준술 윤재호 유호철

▲사회학과

서호철 계봉오 주자영 염강수 최성환 홍일표 김창원 류연택 이수강 이영석 최민규 강영훈 박용우 박종훈 신일수 이승환 장현성 정성은 최슬기 최영규 황석만 황응구

▲인류학과

김윤지 김현주 김효진 배정현 신자은 조수미 김정균 신상의 유지선 이진영 김혁균 남궁우진 임지훈 조상준 한순욱 안승대

▲심리학과

김수영 박윤조 박현주 오시영 윤소희 이한주 장윤경 정주영 한수정 황준석 강동포 장선애 지병현 최형원 김성완 김지훈 김진억 소병홍 양 흙 이영진 조진우 김 환 안증찬 최동호 황희철 김 원 김한식 전종민

▲지리학과

김기동 김민호 김석진 김형주 박철립 신용석 신지혜 양영모 유은혜 은석인 정재호 최경은 김화환 이관우 이수한 장수은 박규원 박정재 윤덕규 이동엽 이성호 김상우 김형태 신상열 윤형일 이상호 이희준 최기학 임훤돈 문상기

▲사회복지학과

류연규 임선영 정정호 최현수 류근만 이재호 단희수 신원우 윤여일 정치원 주영민 김재곤 김종주 박상욱 박재열 엄 열 이덕용 이시우 이주열 김경섭 안병민 이승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곽진숙 권성화 김명희 김영규 김인원 송 준 이상은 이상헌 이윤정 이재정 임주영 채명주 최선희 최현영 김경희 강병국 고지범 김재황 김효진 양정균 우현동 최인송 강성수 권혁민 김영삼 민만기 박성훈 오영탁 이정민 조희철 하승엽 김명기 김영진 김윤기 박성원 백유진 이영민 이태원 정 원 원상호 이강복 이상주 차용욱 이창무 장경순 위 찬

▲계산통계학과

김기훈 오재균 강성필 권용길 김선기 김세희 김용주 김응도 김직수 나정파 남범석 반효경 배영민 오영배 오재원 이용재 이은주 임종우 정동균 정유나 정춘자 지종근 노석현 서해진 양성렬 윤재진 이배섭 이우주 임웅규 조학수 최용갑 홍명곤 이인재 곽민정 김수희 김창석 김춘원 남승민 박진철 손 원 송은지 송지현 안정연 여윤희 오대수 윤영주 이현부 임진희 장지호 정영은 최준호 강지선 신현섭 엄성민 오영숙 권승수

▲물리학과

이호웅 강동수 강성호 김동현 김상우 김재원 김진우 김태환 마영란 박상현 박진규 백 범 송영호 윤석진 이덕선 이승엽 이자일 이충기 정현종 최원식 한준구 홍문헌 강호제 김상훈 김수진 김태진 류호상 박인권 박필진 소지용 손영우 심봉구 양호영 황용연 곽규진 이수택 이장원 임성현 최종기 김건택 김용식 손진영 신정환 정의정 정창기 주석진 박성렬 이병주

▲천문학과

이성호 이정덕 이현숙 정웅섭 조승진 한상원 고병균 박윤희 강치호 김성윤 김형태 서 한 허남정

▲화학과

고석연 구종석 김남신 김유정 김정아 김창환 김학중 노영석 문황명 민달희 박은선 배정훈 변진수 서휘민 손세희 손준성 안용식 유창은 이영삼 이종우 이진환 조상익 최승집 하영금 한민제 황미자 황한신 강정훈 송지성 이세종 김두영 김호근 김성민

▲생물학과

김인진 문명순 설정아 송진성 오정욱 채회성 한진희 이용길 김상태 김용균 이병철 이강진 양영득

▲분자생물학과

강일석 김수동 김정화 김현수 김희진 민상원 박성진 안영호 여형범 이현구 이효진 정진주 조용희 이호준 윤경아 김성원 염정섭 김대중 김동민 서태건 양시래 한재석

▲미생물학과

권남훈 김동원 김범준 김선규 김송희 김은진 박옥구 박응식 박진웅 원재준 이은진 이정신 이주영 이호산 전재환 정재균 정철호 차준석 최창훈 추여진 조진호 고보람 류관희 김은석 나영주 남부원 변학문 설덕인 이상일 하남출 허미현

▲대기과학과

김성한 김수미 김영진 윤진호 이관희 장혜숙 하종철 송진호 이순복 모태준 김철균

▲지질과학과

고일원 김용철 이원상 이지훈 정 헌 조남대 한종원 노경철 전진오 장삼룡 최태효

▲해양학과

권선희 김성현 김영도 김영호 김태원 이동은 정경수 최원식 박헌국 이태관 정유성 현우용 하용훈 권이균 김준경 신문석 황정현 박재석 박종서 양대천 유상진 류광철 신영재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강경재 권상희 김선희 김세진 김소영 김연희 김은미 김정혜 김현숙 도연희 박유경 배지현 서연경 이민정 이상현 이은영 정선경 정지은 조진아 최미나 최선아 최효선 한인화 석선희 안소연 오윤정 윤수정 윤충애 이진숙 정은영 황혜경

▲의류학과

김기홍 김종호 박시영 박윤조 박주연 박주현 박지영 배유림 신가람 신지영 양학미 유수진 윤수진 이미숙 이미정 이예영 이은정 이은지 이정은 이지원 이혜원 정윤이 정지우 허준석 황유선 황주연 노진희 강신애 박소영 권소현 나현주 신윤종 홍종성 김민효

▲소비자아동학과

권기남 김선옥 김윤정 김정숙 남궁영애 남현미 문진명 박시라 박은미 박현주 손승희 육은주 이은경 이정란 이찬진 이현숙 임은미 정혜경 최윤정 최혜석 김대원 류광욱 문영훈 석드보라 엄일섭 윤성희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문정 고병준 고석준 권재훈 기우석 김미정 김연준 김일한 김장성 김주호 김현재 김효섭 노예신 박광청 박나리 박승구 박진석 박필종 배성민 서범석 설상현 성주영 송모헌 신동호 안정기 염신일 오종규 우승엽 위지연 유지현 유형주 이경미 이규재 이규호 이병택 이성수 이승윤 이승훈 이재우 이정우 이주영 이중재 장현국 정명훈 정문영 주정호 최현식 호경식 홍성구 황지아 정명호 김소영 손희경 심태호 김민수 김은갑 김진복 김진희 김태형 김해영 노승범 박수홍 박영근 박준일 박진영 변철승 서준환 성종화 신재욱 안병준 오세철 윤상혁 윤창배 윤창병 이 석 이승원 이영채 이재우 이정익 이종민 이지용 이찬규 이태호 임기석 임형주 정우철 조성규 천승민 최재호 홍원경 고영석 권대현 김삼두 김윤후 김창호 김태식 김태영 김현수 류경종 박성주 박세용 박진현 배현수 부경복 석윤구 송석진 신지웅 신창하 신현필 오동운 오세중 윤인수 이민호 이승구 이응석 이장훈 이종오 이준구 이태현 임 철 정성문 정영훈 정집훈 정창용 조영진 차경민 홍강식 홍성진 황석준 곽기용 권명선 김기홍 김대성 김덕곤 김명훈 김상렬 김상수 김상환 김영환 김우형 김윤호 김익찬 김태우 박광철 박정준 백영호 백재욱 변성진 서수한 송승익 송창영 신정호 안도준 안월환 양재원 양혜영 오승욱 오제석 위찬정 유상훈 이기국 이동수 이동운 이석윤 이승호 이연희 이완수 이정은 이준희 이필영 임경섭 정용훈 정희진 조용석 조재옥 조정선 차승원 최대진 최명근 최원호 최정현 최형욱 홍용훈 민효식 사공탁 송석환 이강훈 이관휘 이상범 이원형 이훈배 조성빈 김지헌 권인재 오남현 홍완기 소문섭 김낙정 이상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고영남 구정모 김동기 김동진 김상목 김성우 김의회 김정훈 김정훈 김주현 김현지 김호민 김희진 나유성 남성택 류행수 박장범 백승엽 손석훈 손영선 엄정현 윤지영 이병연 이상수 이소정 이연주 임유경 장호준 정현우 조성익 지재욱 최은석 한선정 한재영 조임식 김영일 원광석 이진영 한대희 하태훈 윤장수 허성윤 허승철

▲공업화학과

강승현 고기석 김범석 김영태 김용만 김종서 김한영 김현석 백지우 서상혁 송준호 신영준 신태호 양호정 오준석 오택진 유재원 윤성훈 이응기 이재영 이정대 이제철 이종국 이춘수 임완묵 장현승 정병우 정상택 정세규 조진우 한승우 홍성진 김태윤 박재영 이찬기 장정욱 형 훈 나승택 양 진 김영식 박성태 한성민 황용식 황상규

▲금속공학과

정진원 권장연 김기범 김민철 김수현 김억수 김인호 나영기 류종호 박나림 박 범 박영근 박철호 백진홍 서종현 손동일 신원식 신찬선 안병영 옥명렬 유영훈 이장식 이종걸 이홍구 이효종 장계원 장민용 주장복 최재영 최호성 홍기하 이상혁 임재홍 구자환 김재석 김정욱 김태식 문효식 배정석 최규택 강주찬 공재도 박용일 백원종 최범현

▲기계공학과

강성원 김동광 김선민 김영일 김영준 김용기 김용석 김정훈 김 철 김태경 김태성 김현우 김형근 류상진 류형두 민성재 박근한 박민우 박성원 박종현 박창규 박태춘 백준봉 송준원 심호섭 안 준 양우성 윤상헌 윤재성 이규환 이기철 이동범 이상민 이석민 이원희 이재우 이재욱 이진우 이태식 이희진 임흥재 장경천 정경섭 정대성 정범진 정원석 정재인 정종현 정호경 정환구 제종두 조형석 조형제 최병귀 최용석 최준혁 하덕식 한방우 황원태 황윤욱 박기홍 김병국 김지홍 변상환 손병철 신동윤 이상훈 이용길 이현구 지현수 최세진 최윤호 최진열 홍순국 김기헌 김정락 최병국 윤용일 이종수 이동준

▲기계설계학과

가재현 강경필 강동화 강민형 강주엽 강희석 공상훈 김도환 김두영 김문기 김보현 김 석 김우균 김정환 김종윤 김준석 김창주 김홍석 김홍호 남지근 류내성 문상연 박영배 박지환 백주훈 서대규 송영재 신태훈 오태호 윤성원 이광재 이광재 이상욱 이성온 이수영 이용욱 이용훈 이준호 이충현 임 산 장훈근 전순일 전창북 정동준 정성일 정인화 정해양 조상현 최기완 최원준 최재영 한진오 허재웅 홍도형 황지홍 황태영 민병건 박인태 배성호 연윤식 이상국 조영준 최원재 김요셉 김진섭 진문수 황인길 김상환 김영규 장강원

▲산업공학과

김대희 김범석 김범수 김선기 김정기 민경진 박종필 선동석 심억수 윤승현 이상범 장지훈 정광현 조정진 최병대 최영상 허 욱 허원창 김성열 김지호 김창현 안유석 우성조 윤태현 서영호 한정민 민찬기

▲섬유고분자공학과

강대호 강성용 강철규 공현진 권영일 김광희 김문형 김병학 김상덕 김응수 김준형 김현정 도성준 서동진 서장일 손지원 신민승 안강환 윤송이 윤장호 이명규 이형순 정형범 정호국 조영준 조은경 주진호 최영호 최원희 박종현 장우진 정재훈 최봉식 송재욱 최수현 박경완 신동익 오중호 이원영 강석원

▲무기재료공학과

강인경 공승현 김덕양 김성원 김해원 김현진 김홍민 박보경 박준호 서오성 안용석 엄명윤 이도권 이원도 이희석 정용호 정재경 정중희 정현석 조성동 최재만 황희돈 김광진 정주현 채진석 채현일 김 환

▲원자핵공학과

김문오 김석권 김영환 김정현 김정훈 김철중 김한성 박민준 반치범 서광석 윤정배 임민균 임우택 전기곤 정경재 정선구 정태원 한승호 황태형 김영민 김원중 오세철 이상민 이홍래 임 준 임환기 윤시우 최광식 홍인섭 손정우 오영석 이용훈

▲자원공학과

길민정 김광염 김성수 김행문 김현우 박병선 박인복 박재한 박준영 배기윤 서연진 신승현 심현진 양주호 양희종 유광호 윤정섭 장동우 조동기 차영호 천대성 최영기 최정희 한재훈 홍서연 엄동원 장민철 전용수 박상돈 박진영 배성민 이인석 이진우 조정민 김형목 이연재 이주수 이현목 장현춘 전성호 하윤철 문한식

▲조선해양공학과

고석천 김경동 김덕영 김동현 김영민 김일규 김진성 박광필 박도현 박상수 박용관 박은호 박재성 방창선 송유석 여동진 오남균 오인수 유용주 윤대규 이경수 이요섭 이정호 이철원 이 혁 정진우 조두연 조인호 조형준 최명근 최호경 허기선 정연환 임우석 강병철 양윤호 이영태 정정호 김성훈 윤해동 이정훈 김병국 박철수 손창환 양정석 허 윤 김대성 김동수

▲토목공학과

권오성 김기석 김동석 김성모 김세배 김영삼 김응재 김종승 김충언 김현기 문종훈 박문현 박범석 박수용 서용원 신경준 신용석 이상헌 이필구 임현우 정성문 정영훈 진봉근 최연수 한유진 박창식 김성훈 석재승 심주섭 임현태 권기범 손 진 신정성 오윤식 옥승용 윤의택 조충현 황재익 강병학 김용균 김원배 김태경 유무성 이경석 이창훈 임진홍 하익수 김동훈 안정훈 이일권 정지락 천창호 최양호 고대현 류재연 박대영 박정철 박지영 유병석 이영노 이인희 이호영 장현진 정강호 차영수 서병준 송창현 최재평 박병정 박훈태 신민철 이승헌 이호건

▲항공우주공학과

고홍석 권남석 김경훈 김명규 김병남 김성준 김영한 김재훈 김정한 김종훈 김지철 김지훈 김철중 김태우 김호선 박기석 변세종 선효성 성웅제 심재현 심형석 안재명 안충일 엄승신 윤철용 이경진 이복직 이수혁 이진근 이현석 전주호 정철웅 조민수 최형호 최환식 하성원 홍단비 홍제민 강재택 김태현 윤승준 이동준 임병락 조대영 탁형열 이상범

▲화학공학과

강 일 김도훈 김명래 김용헌 김우재 김은성 김태선 남윤성 류정현 박시재 송상욱 송선기 송지호 송효준 안성욱 양유성 오창근 이경무 이범환 이수경 이원종 이인재 이정수 이준호 임성갑 장관호 장영중 정대산 정웅교 조양준 조재설 최원선 한경표 황지영 황지의 김유식 박경덕 이규영 이재헌 전태현 정철수 홍한결 김진련 민용기 박성훈 윤여상 이창익 이홍권 정상원 한중진 김준헌 최기호 최두순 최지원

▲컴퓨터공학과

강석무 고동일 김기한 김기홍 김도형 김상희 김유아 김윤종 김진수 김창규 김창훈 김현준 석승한 성현중 송원상 안성준 엄혜윤 오장민 이동운 이성우 이 용 이인복 이장훈 이정문 이종범 이태원 이현선 임선규 임채석 장병순 정재인 정채상 조원범 조형주 조효정 주성욱 주윤철 최종진 최태석 한보형 한철희 홍창배 황규백 김성국 김진용 이성우 정기청 정상학 한상우 김상현 오문욱 이근택 장실완 선형렬 조민희 한문수 고재현

▲전기공학부

강영환 강지훈 고영균 곽노준 곽문교 기문철 김경염 김광진 김광현 김동규 김명호 김민호 김병근 김석기 김세화 김소영 김영훈 김용성 김우석 김재욱 김정태 김진백 김진태 김진호 김창연 김태웅 김태환 김현승 김형진 김형진 남윤기 남 희 노정훈 도현민 민상호 박기찬 박부식 박성배 박영언 박재형 박정근 박태정 박현상 박현진 배정현 서동수 설지윤 성기범 성석강 소범수 손요찬 송기욱 송민석 송성욱 신종신 안영우 안영호 안진수 양병선 오태영 원상웅 유지연 윤인수 윤태환 이규왕 이규일 이대희 이상민 이상우 이상호 이승재 이승철 이영민 이원규 이원창 이유상 이재영 이재한 이재호 이정훈 이종욱 이종은 이주열 이창형 이형일 이후진 이희춘 인지혜 장경운 장석호 장현기 장현성 전상근 정건필 정동준 정병일 정상용 정성용 정연재 정영훈 정진호 조봉열 조인호 조정균 조황주 천홍구 최동열 최병원 최영전 최종상 최종훈 최현성 최형배 추교웅 탁세윤 하상혁 한상은 한아름 한인서 한주만 함지훈 허곤욱 허 돈 허진영 허 훈 홍성주 홍승표 홍호택 황근철 황만수 황상용 황성욱 황은정 황은주 황인구 주휘영 여순재 강진원 김윤진 김철진 김현철 류영덕 민두홍 민승현 박근오 박대진 박상준 박상준 박상현 서동현 석광진 손철호 신성국 원태웅 이용석 이장원 이정렬 이종주 정혁준 채동혁 홍성숙 정해윤 강신명 고민석 박세호 최재준 김상영 김유진 서상록 이창열 김동열 류우찬 백인규 이혁제 이인복 김영진 박승렬 오승석 홍경두 조준형 윤진영 임재철 김욱은 박창일 박명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김상미 김진국 김진성 박순호 박재원 송호암 유미랑 이제현 임한규 최은식 최현정 노영호 박동현 박재성 옥기영 홍석구 윤동환 이주현 이한길 최석주 김윤태 김창균 김태헌 문철웅 송태경 원상호 이용기 이정명 이진호 이충근 정광철 정실환 조용한 최영준 차옥현

▲원예학과

김수정 김숙정 김연희 김진성 박민경 백그림 백만석 양서란 이윤주 이희종 전진원 정태진 최극순 김근오 허진회 손호석 최구순 최해준 홍성일

▲산림자원학과

김성욱 박경식 송성길 정용준 허지훈 공대희 김보규 이영수 정영덕 조용일 고경석 박병배 홍봉기 권상윤 김재규 김종운 박병은 박정환 이용준 이형욱 정용선 지성환 서진석 윤성관 정 훈

▲임산공학과

구자일 남진우 민선주 박선규 신미경 신승호 오정권 이원우 신만길 안현견 박명식 최영섭 황인서 남봉림 이선기 이순환 이재용 이재혁 최경석 황성록 김경도 이만원 권완오

▲농화학과

신영희 우상원 이주호 정광호 정정식 변지연 손은규 이경규 이승희 조유복 황중순 김병욱 양승범 고길홍 고영진 김재준 박종대 서해용 선석균 조영일 최연조 한덕원 김원봉

▲식품공학과

김선호 김정모 김태환 박윤형 박찬호 변재언 전병화 정상원 진희현 천상희 김희연 곽경창 김대연 김승훈 박상옥 박지천 서정민 이주훈 이충률 임필수 김정선 김준용 배상영 하승민

김성준 김윤원 송명규 양동섭 이용필 이원규 임길진 전광호 강대훈 김대원 박환태

▲동물자원과

강호진 김기연 김덕경 노직환 민홍립 서정관 양진철 오용석 유창식 이 정 정혜원 최명훈 하승룡 박성민 송성현 신종민 엄봉원 강성우 강완병 신민선 조정복 하석호 강호준 김영민 김정렬 박승범 박종필 송훈석 심성수 이대연 이동철 이명근 조성택 한철희 황일환 김동민 김정식 박종운 한성호

▲천연섬유학과

김정진 남경률 송주백 신선희 신형철 이화준 장기헌 최남석 최중구 하현철 한청희 김대웅 신설은 이 훈 정병희 곽규호 김헌일 남 진 유성호 이강원 김종오 박남진 박진덕 이승진 장래원 정재형 최대현 한동철 강현수 김봉주

▲농생물학과

강위수 김병용 김전암 김진환 남궁철 서동필 서정민 손황배 신현경 안성용 오은설 이정일 전재진 최종민 최종표 한기용 강택준 이상욱 김종환 박상근 조용욱 강태선 이학로 조창섭 김영찬 백승진 정민규 홍성표 김동진 김형욱 박상재 최덕수

▲농공학과

권명준 김성일 김태오 신일섭 정선우 조영준 김명열 김재영 김준섭 장병훈 장현진 김강석 김경준 김주호 송장원 송창국 이영찬 장기성 정남수 김기철 김상민 김성필 김홍준 라준엽 박세원 임형택 주욱종 차경섭 최세광 문경수 김정섭 유양호 윤은택 이성원 이종수 이한석 전성필 한경훈 한영수 박참규 신동준 신유성 최낙진 김준희 김희구 박정인 안형철 이성욱 최창호 최형석 김재호 최석원

▲농가정학과

강기원 김봉선 김수진 김혜련 박유신 박지혜 이나라 이현주 이혜나 임경숙 전수경 전윤미 정수현 차승은 최효선 함선희 김선희 박경희 배수나 변성숙 송광자 이경영 이주영 최근영 도정화 권은숙

▲농업교육과

신성호 윤석인 이병헌 이정훈 임기홍 조병수 조정익 이원석 이영기 정진철 강권영 김현수 서병철 신희명 이영준 이윤화 허경식 허영준 이병구 이수학 김영수 남창우 배장희 서형인 오성권 이규호 정한모 성권상 이정욱 최영일 강병준 김영대 박성훈 심광섭 어용철 이강일 이준우 조철희 강경웅 이민세 지현묵

▲조경학과

강세호 권도영 김운혁 김정윤 김진희 성정환 양태엽 오정연 유선근 이상민 이원희 장영석 정인경 정춘선 조성연 조승만 지혜영 박소영 복준호 신재훈 오성환 유연강 정주희 김은일 나병호 오태경 이준섭 허대영 허영남 박상준 신승태 이준해 채 일 이강우

◇미술대학

▲동양화과

고운산 김수영 김 익 김현진 박소민 손희경 우주희 정희우 권지혜 정재호

▲서양화과

김매리 김이진 김준현 김한조 김현정 류 준 민진선 박진아 방성제 연윤석 이윤종 이윤준 정현영 정현주 정혜윤 조경란 황연주 정신영 강병직 박수정 박창욱 임소연 김관희 김소영 이종후 황호경

▲조소과

강주연 강형석 김대락 김주환 나성윤 박은선 박정선 유영민 이종국 이하림 임신혁 전보립 전윤조 정세은 안기환 위세복 이주현 하재현 한정립 김경수 이나라 황도일 이동주 장을봉 장준혁 박성규 장기수 박상진

▲공예과

박연선 박진우 이승희 이정아 이주연 이형기 태인영 현지연 한영숙 김태환 민경은 선기호 이종혁 황승욱 하성우

▲산업디자인과

권정임 김상록 김은선 윤지원 윤혜준 이소현 이승윤 이제승 이주희 이지영 장은심 조수용 최재연 송미나 염주련 조예원 김유희 문재원 오철훈 전성진 정의태 송인호 이주암 구상권 권오복 배민철 김종주

◇법과대학

▲사법학과

감대협 강경호 김동철 김동훈 김영신 김중남 남동희 민세훈 서동칠 서범수 양인준 우인성 이상원 이정민 전휴재 조병구 차태진 최경선 하성원 이호상 박성훈 유영무 정은혜 윤성현 강민호 구자현 권오현 권준혁 김봉수 김상훈 김선일 김영일 김태근 김현정 김현철 남문기 문기탁 박성준 배용준 손동환 안효정 양귀환 엄수강 여하윤 오권철 오용규 원호신 윤애림 윤원상 이경민 이민수 이병훈 이상현 이성규 이승준 이승철 이영광 이완수 이재근 이주영 이준서 이창열 이형관 이형원 전지환 정연식 정영학 정원혁 정은지 조상우 차영민 채휘진 최민용 최상종 최철민 최홍석 한창환 홍지영 현인혁 김승곤 김태은 신우정 엄익철 이명헌 이원학 조희환 최혁준 황재식 강명일 김형균 최중식 박수현 박종하 정종희

▲공법학과

김동빈 김병철 김성민 김세원 김형탁 손주철 유창훈 이동호 이정석 임종순 강수경 강우찬 강지훈 구철호 권기환 권순열 권오성 김남호 김문수 김병철 김성욱 김성환 김재환 김종근 김종복 김준엽 김지웅 김태학 김혁기 김호춘 류남렬 박동범 박상재 박상화 박일희 박준식 손영호 송성국 안의환 양진호 양태건 예세민 온동완 유기성 유연경 윤상수 윤준호 이규성 이동천 이동헌 이병대 이성원 이종원 이철원 임기환 임영필 임찬홍 장성호 조대호 조병규 조성욱 조성호 차태홍 최성완 최지한 최태현 한희열 하태희 이종호 정광명 공태용 김동현 김영주 김종철 김태승 성상헌 신종윤 이승재 조영찬 최복기 홍성일 송강영 민세동 송민호 이주열 이철희 정영은 정영환 한규남 정우실 이재권 엄재민 김남철 서만석 강경국 강영훈 이인근 정종민 박용덕 최동원 장윤석 박성호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세희 선혜연 신동미 오범호 윤정선 강태훈 이철재 강대중 김진홍 박 일 전정호 김성훈 문택석

▲국어교육과

강윤진 권선명 김명진 김미경 김미혜 김선옥 김성해 김주희 김호태 박여미 박화숙 서민영 송혜원 신해연 심윤정 심은아 어은주 유선용 이은희 이지연 조현숙 차선희 하동원 이민수 주세형 김선호 김수학 박의용 한양인 정인성 김동현 이재민

▲영어교육과

김도현 김윤자 김의영 김지영 김태영 박현진 박혜은 윤장우 이방실 이선경 이준희 이지민 최수진 최은경 현선영 홍연경 김무룡 문정미 안지혜 이정립 임승연 정현숙 서아론 김진성 박광현 윤승남 이민규 이병일 이상섭 이 형 이후고 최제호 고대웅 정택정 최상목

▲불어교육과

문향란 박경희 서은경 심은정 정은미 최소영 강선아 강현주 성영은 신현주 이경현 주현정 김장진 임말희 유진상

▲독어교육과

강윤혜 김경호 김수진 이승훈 임정은 조선희 고민정 김재훈 김태훈 오민웅 유승주 선해원 이진수 김승춘

▲사회교육과

김경아 김은정 박지숙 이영찬 하영미 박정숙 김의수 문성환 은지용 이재훈

▲역사교육과

김선옥 김소니 김지애 김하라 노경덕 류지인 박란희 박미옥 신현영 이남용 이미미 김대호 김동준 김효준 최경근 강승룡 김진봉 이미경

▲지리교육과

김숙진 김 훈 류미선 박세구 윤창수 이찬주 이혜란 정선희 정 인 최광희 황성순 설태주 김화민 양승철

▲국민윤리교육과

김병연 신원동 심상철 오미화 유창호 이병갑 이현주 인선호 장현주 정순정 조승연 최근순 강승권 남내원 오은미 이경숙 권경원 서용권 송영훈 안영열 양우석 조진호 김상돈 정일찬 유효선

▲수학교육과

고정화 권서영 김윤희 김종남 육영석 이미애 이인호 이주안 임정순 임채영 장봉규 장재효 정남규 조석연 조성혜 최은아 한영애 주정오 권경렬 권석일 박성하 장광걸 이창희 장우석 공정택 김정배 남선주 안대근 김명섭 한구운 한석만

▲물리교육과

김경진 김대진 김대호 김호열 문종민 박미용 백찬욱 이인호 정수정 정순신 최재혁 최태원 황인성 황인수 구자희 박종진 이성원 이진경 이철현 조경빈 천주석 최준호 남경식 김기호 김덕근 김종엽 박승호 이용훈 허 용 김한석 최동효 김진철

▲화학교육과

고미경 김지영 김찬국 김창민 김희조 민혜진 박소향 박순용 박승애 박정헌 성수미 성정희 안순애 임종호 임현창 조규웅 최경인 한미영 김용재 황인국 강정원 김호성 배원권 조성진

▲생물교육과

곽선아 김건희 김도형 김홍주 박경태 박선오 박현묘 이규현 이옥희 이지영 정혜근 최현진 전우인 이은하 김순희 김지은 박재열 이채린 임완철 안성탁 정효철 이능섭 문지은

▲지구과학교육과

김주한 남리라 라민상 박태설 박찬경 박찬혁 양정은 유근혁 유태연 이의성 이태천 최기영 한정현 박선경 배진숙 서혜선 유은영 문찬석 박노욱 박창용 황석규 김의택 서기원 이동현 이성욱 홍성욱 김봉근 김성수

▲체육교육과

강선규 강영구 강유석 김기탁 김병호 김성호 김용성 김종희 김진성 나원열 박연준 박주영 박한진 성상길 손창우 신성훈 오천열 장은실 정찬영 조욱연 조현호 주숙현 함종규 허인국 황선환 황수연 황정호 박윤정 박종근 박형석 하상민 김진수 안종훈 하인목 권웅기 김대수 김성규 김종현 박대풍 윤영길 장병길 장성택 김방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강태우 구혜정 권동혁 김기석 김완희 김용환 김형은 김혜진 배원기 서민호 심재훈 양지흠 유종현 이광국 이윤정 천명선 최은화 최호정 허진영 홍기혜 김용석 김진택 김관욱 나홍채 박상훈 박종목 서혼수 이상현 허 권 길광철 김준걸 문두환 박병배 박수한 서제훈 이석용 이원우 이충호 장우진 정영이 황경택 강재운 최완영 채영진 황규택 박 혁 심기섭

◇약학대학

▲제약학과

김명중 김선미 김성훈 김정선 김청옥 김현정 류제호 박성원 송혜진 신수영 엄정현 오수미 원형식 이윤임 이은정 이 인 이정미 이해리 이혜경 장문희 정재훈 정지은 정현자 한은정 한 희 홍인자 김인석 김숙현 김지선 손인기 이혜영 김정식 신병길 최민구 박인호 김정헌

▲약학과

김민선 김선영 김연숙 김은정 김정훈 김태현 김호준 마충제 모주현 박진선 박한라 배민영 백지혜 심향미 양미영 양성희 양은영 이내영 이영선 이자용 인혜숙 전완수 전지현 전현주 정승혜 정연석 정재은 정현주 조소연 조수현 지현경 최재남 한연해 허 빈 박규환 이재언 송진범 강병철 박성진 임영근 임화종 김종완 전성진

◇음악대학

▲성악과

강은정 공병우 김세나 김은실 김정옥 김지선 김지연 김혜은 박서현 방청현 서희정 신동원 안사훈 이경재 이 빈 이선영 이승민 이지연 이혁주 임주희 정현주 한은경 박수경 금우현 이명성 이병주 차성일 권혁준 길은배 김계한 이태림 이병삼

▲작곡과

김미정 민동원 박윤경 원성미 이효정 최소영 노재현 김정훈 이병무 황대순 김세린 문희선 박성선 이재용 하지숙 김대원

▲기악과

권경희 김귀염 김민정 김보연 김소의 김승연 김지윤 김지은 박교은 박재은 백승민 성미경 송윤종 양경아 오세나 유순영 유희정 이소희 이예숙 이인경 이혜연 임정난 전영신 조수현 조은아 최소영 최수연 최운성 홍은하 황영희 이재경 남은정 김명주 김용화 김유리 김윤경 김은진 김현남 문지형 박수정 박정윤 박준영 박혜진 손명숙 손치호 신혜영 안신영 어정현 유은준 윤혜원 이문영 이지연 이태정 장윤영 정자희 정지윤 최정인 김선희 김정은 민희경 손연지 이상은 이승민 이지연 임명진 임현수 이지수 홍순욱

▲국악과

김문주 김미선 김민선 김상은 김연주 김지윤 김진경 김희경 노은혜 송정민 신기린 안현정 유은숙 윤영해 이영아 정미리 정영아 정현경 조수현 조수현 최인영 유재일 윤미경 윤혜련 장인종 정원호 김정승 김형민 장석준

◇의과대학

▲의학과

강보현 강세훈 고광진 곽금연 권영조 권종원 권혜은 김경수 김경우 김기원 김남균 김대호 김도현 김민관 김민규 김병수 김병수 김병식 김병재 김석주 김석한 김성덕 김성민 김수지 김영아 김용석 김 원 김재광 김재원 김재윤 김정순 김정현 김정화 김종양 김종현 김준배 김진영 김창국 김충효 김태범 김태정 김한준 김현영 김형선 김혜정 김활웅 나규민 남광우 노지윤 류진환 명재성 문석정 문현호 박광열 박근민 박달우 박세진 박수철 박재형 박종립 박진우 박형욱 박형철 방재승 방지환 백혜경 서성욱 서영호 서인석 손대경 손성욱 손우길 송경준 송시열 신계이 신동봉 신상익 신용욱 신정은 신현덕 심성은 심우섭 예병덕 예성호 오도연 오진영 원종현 원태빈 유상욱 윤병재 윤준기 윤춘식 이기문 이동연 이병섭 이상윤 이상준 이선영 이우창 이정렬 이정환 이종열 이지현 이진수 이 철 이태훈 이혜승 임소영 임주환 임준희 임형준 장재승 전재범 전재용 전홍진 정강산 정동섭 정민욱 정성진 정영일 정영호 정정래 정창원 정 헌 정현훈 정호경 조미자 조상호 조석기 조재현 조창환 조하나 조현일 조희경 주 건 진정욱 최덕신 최보윤 최상일 최영식 최영주 최진오 최철훈 최혁재 한승수 한용수 한원석 한혁수 허 걸 홍세미 황규리 황상원 황영환 황용일 황의석 황준원 장진호 이상호 허강철 정명관 김은탁 안돈순 권윤용 김우정 김태중 박사라 윤유석 이상협 이석배 이승용 이정주 이주혁 장영이 정찬우 정희두 황기태 황창주 도영경 정재열 임기형 조현섭 박민수 이효원 이경희 최영희 신좌섭

◇간호대학

▲간호학과

강영미 고 영 고형경 권민아 권용희

권희경 김명화 김유래 김은선 김자영
김후정 김희진 명희재 문혜정 민열하
박미현 박소현 박영미 박지연 박지현
박혜윤 배지영 서선예 송길수 송은경
송지연 심은혜 오경희 윤지현 윤혜전
이미영 이복임 이성희 이윤경 이현정
인영희 임덕상 장윤경 장훈숙 전영진
정선호 정수경 정인혜 정주아 차은민
최선희 최은영 편이령 하은주 허정순
홍승연 김가영 김유자 김지순 김희민
박정아 신희경 오지혜 이경희 이의경
조선희 조은주 염미선 윤영란 박정순

◇치과대학

▲치의학과

강진한 고영일 고용준 고정우 구본재
김기연 김기종 김도훈 김동범 김명진
김명희 김석호 김수진 김수현 김연희
김영휴 김재용 김정호 김종훈 김태형
김한욱 김혁수 김현주 김홍준 나종찬
노광섭 노세환 노승철 도광해 문재웅
박관수 박대우 박문수 박상영 박소윤
박영경 박영석 박현주 배광학 배규현
배용규 배지현 백상현 백상훈 서정욱
서제덕 송승일 신광호 신내섭 신정범
심형섭 안창현 양철영 오세종 유양근
윤정주 윤현주 이강근 이병욱 이보경
이상헌 이성재 이정옥 이종기 이학철
이호상 임종갑 임종준 장철호 전형식
정상균 정재진 정혜욱 조 훈 지대경
진훈희 차용두 차현석 최상진 최승호
최정화 하헌석 한은영 함영석 허재식
홍기상 홍헌표 황보연 손원준 장민욱
최보문 강경인 고희숙 권태준 노현기
모기영 박종욱 배광성 임영선 임지준
정근웅 최영규 이명우 김기영 김정래
송만용 구정혜 박상태

석 사

◇문학

▲국어국문학과

김미영 김석봉 류준경 곽명숙 이강수
김승구 김 현 이경하 이병기 이정자
이진호 천정환 최형용

▲중어중문학과

이민우 서용준 강병규 당윤희 이승훈
조숙자

▲영어영문학과

김진수 박수호 권정아 김경아 정은숙
김희진 손영주 송주영 오영일 전 욱
함종선

▲불어불문학과

박혜진 전선형

▲독어독문학과

위정일 남정애 박동자

▲노어노문학과

차지원 김계희 서선정 심지은 이경완

▲서어서문학과

박경희

▲국사학과

박현순 타 냐

▲서양사학과

서지연 장문석

▲철학과

김희진 노호진 강진호 송명국 유 혁
최영천

▲종교학과

김창한

▲미학과

박배형 박영섭 이수진

▲고고미술사학과

민병찬 유병하 유용욱 김현임

▲사회학과

윤종희 조형근 김종철 정재기 고병권
김은영 박명준 박순열 신현기 이수현
하정옥

▲인류학과

조숙정 김정아 김현희 박현귀

▲심리학과

배문정 유유정 이민선 김지욱 오주현
주리애 한정원

▲지리학과

문수연 전규호 백선혜 최운섭

▲사회복지학과

장숙아 정승희 최승희 김진숙

▲신문학과

권병수 박한우 허인정

▲협동과정

김 헌 김진식

◇정치학

▲정치학과

이정민 권병태 박원호 강신구 이정철
홍재우

▲외교학과

김범수 김준석 신현영 이학선 하상응

◇경제학

▲경제학부

강주식 김진용 김찬수 부동식 송재혁
양성수 한정희 허준석 홍민기 김지석
이석제 조가원

▲국제경제학과

맹주현 이진성 최병희 박민수 우재일

▲농경제학과

최선수

▲협동과정

박성배 이태용

◇경영학

▲경영학과

권재민 송혁준 강금만 강정구 강보연
도한준 한정호 한희진 강동석 강인수
곽태우 권기태 박인호 박홍규 송기상
안현진 양우진 우승구 유지한 이용규
최돈용 한상전 강상규 고광모 김문성
김영대 김원우 김 해 김호영 모영철
문귀봉 박명주 박성엽 박성호 서석우
신수정 오미혜 이상영 이세용 이지혜
이창엽 이혜선 임청원 정진섭 강명수
강상완 강승구 고형호 공영일 곽진민
권세훈 권진욱 김경훈 김관철 김범수
김선엽 김승현 김영구 김장훈 김종남
나준호 류건상 문지수 박대현 박문구
박상준 박운본 박윤미 박종춘 박지현
백종수 변진웅 서정모 송기호 송호석
신경암 신동걸 심현지 안세진 양선영
여상훈 오성탁 윤석호 윤성진 이동섭
이상민 이원영 이은영 이정준 이정현
이정훈 이제호 이준구 이형주 임미자
임양훈 임중빈 장광훈 정병현 정 훈
조성룡 최기환 한정섭 홍범락 홍종현
장리라

◇법학

▲법학과

오규호 정상익 최선웅 김도영 임희철
장 일 최성진 강석완 김진오 이정훈
이성용 조기영 홍명수 김대인 박준석
박 훈 소중희 이웅희 한병영 양기진
정규원 정희찬

◇이학

▲수학과

전영주 최양선 최윤정 김종락 송경우
김정아 김경선 김복기 김 용 김은주
김정래 김준석 김철우 김효민 김희정
나영성 남관희 박광순 박상수 박상훈
박성숙 서봉선 신동의 심인보 엄명희
오수정 윤형배 이재혁 이정륜 조 연
최광석 최소남 한대완 한창용

▲계산통계학과

김동규 김보형 박근덕 박성식 박성희
박윤나 서진욱 송혜진 여광재 염승철
윤상의 이민섭 이재원 이창하 이혜경
장 훈 정태선 조경운 조성복 하정수
김지영 강병국 김수진 박준용 박철우
서정강 성병찬 연규필 윤성철 윤화형
이경은 이규석 천기영

▲물리학과

권오갑 김동현 김현호 임성균 박인철
박종대 부경호 윤상수 이상은 곽재훈
권기섭 권오성 김강용 김동욱 김범석
김정호 김종안 김종혁 김혜정 김호경
나현철 박노정 박도진 박소희 박재석
박충현 배진하 백인규 신상민 신재경
신혜영 심우식 양지상 양행석 엄대진
여순목 유채현 윤규섭 이경일 이기주
이만환 이상갑 이상곤 이상헌 이성준
이승원 이윤상 이정태 이종필 이지우
이진환 이현권 장현기 전진호 전진희
정관욱 정인철 정태현 정태훈 조승룡
조영달 조원범 최성호 최찬경 최필모
현상진

▲천문학과

장명순 장승운 양정훈

▲화학과

남창훈 이상호 지형석 강 혁 고재영
고재형 권경립 권영미 권태혁 김건성
김동윤 김민수 김범수 김선민 김영아
김정은 김정현 김종원 김택겸 김필석
김해조 박진성 부한길 서정욱 성용석
손승완 송재규 송정배 오재욱 유현웅
이달래 이명원 이선배 이성로 이영민
이인수 이주은 이지윤 이창규 이희규
임용범 장도영 정기주 정문철 정연경
정용규 정재명 정철호 정현진 정희숙
조영신 최대승 최상훈 최종욱 한상우
한희경 허지영 현창봉 홍석원 홍성택
황인성 황현석

▲생물학과

신정섭 이병하 기혜나 김성윤 김성한
김용규 김정연 박미라 신나영 윤일선
이상래 이상명 이승혜 이주형 장덕진
조영훈 최은영

▲분자생물학과

김승환 도윤경 류성호 박재용 박찬정
손원석 신동헌 심영삼 심윤경 안종성
유응재 이창진 정유진 조상래 천경미
한영구 한 진

▲미생물학과

김동욱 김상준 김영원 김완규 김종묵
김현석 박세호 박용만 방은희 배은녕
배재범 신정섭 양은성 이승재 이진원
이창훈 임영은 전은영 정형진 한주석
황성욱

▲대기과학과

김민정 김현주 민승기 박미정 변재영
송창근 윤대옥 이보람 임영권

▲지질과학과

김태희 박종훈 이정은 조정필 최정헌
정의호 이훈열 장성준

▲해양학과

박미경 김선동 김준영 박재훈 이상훈
최동한 최정훈 김용훈 류종성 박선영

▲협동과정

김명진 문만용 장대익 가순일 권흥선
김미진 김영화 임석원

◇가정학

▲식품영양학과

김유미 권미라 김양희 김은경 서정민
송윤주 이윤경 전기숙 정연재 정현주
홍미영 홍윤정

▲농가정학과

고정숙 박영희 이미정 이영주 황경숙

▲의류학과

이승엽 남승현 심소희 최해율

▲소비자아동학과

서경의 이성옥 강유진 김소라 김영명
김현수 서지원 성미영 신하연 이나연

◇약학

▲약학과

이재신 강시현 김광미 김란수 김민수
김민정 김민화 김성연 김성이 김은순
김은아 김인숙 김종한 김종호 김진관
김향숙 김혜경 노은영 도영미 류윤미
민경훈 민향원 박영신 박정화 박철원
박혜란 박혜영 백경민 백소영 서소영
소동수 송미령 신동윤 신미경 안희철
양은정 오한준 유정실 유지형 이무열
이소라 이재욱 이종국 이현아 임경민
임두연 임형신 전미정 정성훈 조은정
조하원 조희제 진영원 최수미 한선영
한희용 홍성종 홍종수 황용연

◇공학

▲건축학과

한재석 김시한 이현미 김용이 이규상
구은숙 김경훈 김광춘 김명선 김영민
김지현 도윤찬 박유준 박정대 박지훈
서성원 신승수 안태현 윤현기 이상훈
정신욱 정용욱 정재홍 조재모 최덕신
최원준 한혜승 황정하

▲농공학과

강 성 박기욱 정종홍 김우기 김태민
김태연 노현권 류일훈 이동렬 이동훈
이정훈 이희환 정선옥

▲공업화학과

김범준 김유경 김유일 김재홍 김종민
김한준 박 헌 박희수 배재광 서동열
손동락 신규순 심규석 유승후 윤승웅
이승진 이종찬 장인국 조동현 허진목
홍유성 홍진규 황희준

▲금속공학과

강영태 김남식 김대용 김영철 김용희
김재욱 김창섭 김태경 김형준 문권진
문준혁 박해석 박 현 방인완 배진호
백종아 서진삼 서진유 안성수 안재환
안정훈 안중규 양영기 오장욱 오화동
유재성 이광희 이동준 이유진 임형택
정득석 정세영 정연준 정증현 조성래
조재영 조준상 차필령 홍순민

▲기계공학과

강성채 구본영 김관우 김상준 김성구
김영재 김재수 김정훈 김종우 김진백
김훈재 남궁각 박정영 박종선 박태용
송찬호 이승복 임석현 정선웅 정우호
정의엽 정현수 정형욱 최봉근 최석민
최태열 한성현 허준범 현범용 홍춘근
황재석

▲기계설계학과

박용수 기동우 김동균 김수형 김 원
김종일 김종헌 김종혁 김진욱 김 충
김태수 김현석 노경윤 박규식 박영빈
박재성 안우정 안재홍 안현식 안형준
양문호 이경진 이상원 이상훈 이승현
이영수 이우석 이일환 임광섭 임동규
정승욱 정재일 정진혁 조광섭 조성태
조유호 조필주 최문철 최성광 최영준
최인진 최지현 한상서 한승일

▲산업공학과

강정욱 신택진 조정식 신동규 구훈영
김기봉 김남국 김대환 김유신 김주미
김주신 김창욱 박범환 송명섭 유인섭
이기리 이기창 이학민 장태우 정민하
주현택 최장원 황성태

▲섬유고분자공학과

박성진 강성택 강진우 고민재 고준석
김격현 김도경 김승오 김종래 박봉석
배수현 유민재 유상우 윤홍준 이돈원
이석원 이승주 이용욱 이재열 이재호
이정진 장영길 장태화 정정훈 조광신
조광제 최중환 최호성 허태영 현정훈

▲무기재료공학과

하상부 김대연 강창협 김동완 김수길
김종환 김태견 김형훈 류관호 문석기
박기운 박정훈 박태순 손종태 손지원
신희남 안영규 여환국 윤석현 이상법
이상주 이수민 이원호 이재형 이태혁
임경연 정지영 차재철 최제원

▲원자핵공학과

정태균 김성헌 김종욱 김주열 김지현
심형진 엄규섭 이나영 이상원 이승진
조영호 진봉용 황수현 이범희 김경섭
윤성욱 김상권 박지홍 송태을 안경문
이두호 이성규 이영균 정구진 정슬람
정직한 조수익 조희제

▲전기공학과

이종욱 구현철 권택정 김민규 김진호
김창균 김홍규 김홍균 민성욱 민웅기
박기태 방훈진 변진규 손영익 안시홍
양병춘 여선영 유준석 윤도홍 이동영
이상호 이 욱 이장원 이재문 이정우

임무섭 임태균 임형택 전석호 전재홍 정만호 정연우 정우준 조동혁 지창현 하정익 황도성

▲전자공학과

강상기 유태종 강석호 권혁만 김경환 김광훈 김대홍 김도완 김봉수 김시형 김우진 김일환 김정권 김정배 김효준 류재호 문기태 문병모 박경수 박성경 박종국 박진표 변명광 서강석 손희관 송영화 송인호 신동완 신동헌 심상민 안재우 윤하룡 이경석 이승욱 이종원 이진솔 이창범 임형규 정민호 조상희 조성렬

▲조선해양공학과

김경환 강중규 강태운 구본형 김 광 김봉재 김성준 김호진 문성춘 박영하 박태준 백형수 서정우 손동익 윤균중 이경철 이석원 이창현 이현호 임중현 정필상 정현승 천창열 최영복 허철은

▲토목공학과

황세환 김태원 문상조 최광철 강동옥 강상규 김경석 김영도 김주형 김창수 김홍식 남효승 박대홍 박준호 박진용 박현우 유 영 이갑열 이규석 이정한 이정휘 이창호 이해균 임홍국 장승엽 정 운 하성욱 추프랑솨 김규동 오인택 이병훈 최승호 김광수 김동국 김영호 김유진 김재철 김주일 민정웅 박재형 박태환 송영일 양전섭 오동익 오성훈 유수현 유웅준 이경욱 이윤희 이장호 임동근 정건목 최동진 함도진

▲항공우주공학과

강민성 권혁빈 김경남 김규홍 김대인 김덕관 김유신 김종민 김형민 노영준 문종윤 박근영 신동호 신성룡 안성우 윤태석 이원철 이정한 전성진 전욱표 정순완 정재훈 최승우 최창환 추연선

▲화학공학과

강병관 강정화 구본영 김순호 김연상 김완구 김윤식 김주민 김진욱 박교익 박성준 박세호 박주현 백승필 변석훈 서성현 어수영 이병환 이승헌 임광모 장기석 전홍재 정굳건 정왕모 정재훈 조성일 조한석 차두환 최병석 최세진 최영헌 최홍구 하경수 한기훈 한평현 홍정숙

▲제어계측공학과

고봉준 김도형 박솔잎 권영신 권오성 김민규 김성범 김성욱 김양오 김 욱 김태한 김태현 박병대 박인규 박현자 박현주 서영우 송오석 송진우 심병효 원석진 유민수 은용순 이근재 이정우 정구민 정현해 정형철 조성호 좌동경 최승문 홍현수

▲컴퓨터공학과

박상원 강주영 권문상 김건태 김영구 김용한 김종헌 김지용 김형호 민경섭 박동주 박명선 박정훈 박찬익 박한규 서 민 성민영 손영란 송호용 심정섭 안현순 윤지혁 이경훈 이동호 이승원 이시은 이영석 장정호 정승훈 지현호 천경욱 최성훈 최재원 최차봉 최홍기 한정희 홍지만

▲협동과정

이원진 최재순 박근우 배봉기 이종환

◇농학

▲원예학과

강화정 윤석규 강용구 김도현 남석현 박성민 박지영 신현주 이병철 이준배 이창희 임선형 지은영

▲산림자원학과

권순덕 최선덕 민경택 강범용 강호상 김군보 김응만 한심희

▲임산공학과

박주생 김정원 박 용 박철웅 성용주 신용수 이철주 정현석 주성범

▲농화학과

김기욱 강경구 김동욱 김성훈 김우표 박광욱 손주선 신명호 이근표 이승헌 이헌중 장효상 정문섭

▲식품공학과

박천호 윤상현 곽택종 권대혁 김혁화 김현경 민병철 박성식 박인명 심재중 이성빈 이성주 이정민 이태훈 임상용 조완일

▲농학과

송성도 신상규 옥현충 윤광일 전희경

▲동물자원과

에르건 김선우 김상호 김 진 김성찬 손재호 양종석 오상현 이광녕 이상범 이성욱 이주용 이지현 전지호 조원탁 태수길

▲천연섬유학과

홍성진 김인철 안형진 강은정 김완주 나성기 염종경 이희삼

▲농생물학과

현익화 이승철 조용찬 강신호 김애진 서영수 오창식 우 정 이철승 장태호 김광호 강상수 김영준 김혜성 노종열 박일권 이현태 홍 전 홍석명

▲협동과정

심재윤 권진경 김세용 박정문 이미정 이재성 이현철 최신권 홍광원

◇조경학

▲환경조경학과

박철우 박상준 이관규 황길연 김수정 김우경 김지엽 김혜민 류창수 만장욱 박선규 박윤진 박철희 배재흠 배지훈 송경연 유나경 이현강 임상신 장선영 장혜진 정수진 진 린 차영두 최정우 황순욱

▲생태조경학과

박준서 김아연 김정화 박희성 윤소원 최기만 최일기 최준영

◇수의학

▲수의학과

곽우연 최귀철 전보영 박은정 윤영심 임채형 조선희 차상호 권영배 김병규 김영주 김종민 김현일 박수진 양재만 엄영호 윤소영 이석만 이주명 이희천 정요찬 제정환 주석천 천두성 최진규 함희진 홍기옥

◇미술학

▲동양화과

이세린 최혜인

▲서양화과

전인아

▲조소과

안병철 윤석순 이새나 이혜진 조현선

▲공예과

최순규

▲산업디자인과

김찬욱 이주명 송지성 오창섭

◇음악학

▲음악과

김무권 김정은 송인길 이정규 이승현 윤혜원 김희연 박희전 이신화 이주은 허윤정 김지영 배호진 서승미 손민정 이진원 이희정 조윤경

◇교육학

▲농업교육과

최동선 김상남 이민수

▲교육학과

안수영 김원석 이윤주 김진수 문종성 최진희 이선영 이예경 장수정 장정아 박성연 조정아

▲국어교육과

서유경 안수진 고영화 유동엽

▲외국어교육과

김미나 김선주 박정희 신상근 서경신 고성현 강선애 김윤미

▲사회교육과

강기원 권재원 박윤경 차조일 김정겸 박진동 류주현 김종연 류연택 백경미 임은희 정현주 김종범

▲국민윤리교육과

정창우 정남철 정철모 김남준 이인정

▲수학교육과

심규선 김재덕 신은하 김인영 김주성 김화경 민세영 이은영 조영미 한대희

▲과학교육과

김양진 박철호 김인성 박민석 심재규 전상준 정지혁 정현민 최일호 최준규 황경수 이화정 김대균 김혜경 김혜경 박경남 반승환 윤희숙 이재호 전경문 최용남 강경미 길정선 서성진 이영일 우일암 고미정 김혜영 박성미

▲체육교육과

김승겸 선봉옥 김용권 김종명 조보성 윤만형 윤창진 이규승 강민수 김용국 김재헌 심윤식 이혁중 이형진 임비오 전상윤 허영진 황현석

▲협동과정

김소영 허희원 손보미 양민영 이정희 최은영 김동선 박윤희

◇의학

▲의학과

최승진 박종권 남도현 박진우 안재훈 이승림 임군일 최 진 김경환 김관민 임창영 신지용 정연권 최영석 최윤호 최지원 강신정 강영제 고원중 구자남 국상미 권순억 권오기 길민석 김규영 김기범 김기환 김남중 김민석 김병수 김붕년 김석준 김선욱 김성민 김영철 김재열 김재원 김재중 김정수 김정진 김지수 김진경 김춘동 김태경 김한성 김항래 김현수 김희성 남기병 남석진 박두흡 박용범 박용훈 박윤규 박재경 박준동 박현진 박홍석 백재중 변석수 서동희 성기웅 손지웅 손환철 신백효 신충호 오국환 오미혜 오세열 오원환 오재환 유상영 윤상웅 윤석준 윤자복 이가영 이관우 이국래 이 란 이민구 이상현 이선영 이수근 이시욱 이영주 이영준 이재영 이창하 이학종 이한주 이홍기 임영석 장봉순 장승훈 장익순 장현정 전송희 전용순 정명진 정선주 정유정 정철원 조양선 조영호 조정연 조현성 진홍률 채희동 채희복 최동일 최영인 최은화 최의성 함돈일 황경국 황승균

◇간호학

▲간호학과

추진아 황문숙 박정환 이현숙 최나영

◇치의학

▲치의학과

최홍식 김 진 김진미 최금강 최미혜 고부일 김명희 김선아 김성민 김유영 김진홍 김현정 김희광 남도현 남진우 박원기 박윤정 박찬진 변종덕 서민호 신상섭 신재호 신주희 윤정훈 이기영 이기홍 이동근 이미나 이안나 이연주 이 진 이채훈 이하진 이혜영 임영일 전인성 정민호 정세환 최상철 홍현주 황경균 황경란 황성림 황정원 황정태

◇보건학

▲보건학과

이영호 이성희 고수경 김창보 박미리 박혜경 박주홍 유명순 이상이 이희열 근효근 김동진 노태영 박혜경 오현주 고운영 김상현 김윤희 김혜련 박소영 윤은희 이덕희 이승희 이용주 이정원 정경인 허순임 윤상진 김봉재 박미숙 신진균 심수경 이철형 이현경

▲환경보건학과

정 진 김재욱 조영숙 주영수 천병철 강기훈 김성균 김용철 박지영 배현주 손현석 신명옥 이윤정 이후장 정지연 정지훈 조경이 조태석

◇행정학

▲행정학과

박현규 변태석 이재호 전영웅 정현백 장 항 권석민 박태형 이덕희 이상도 임병일 조규일 진재완 홍석준 남정희 정종철 김지영 김철승 나종민 연선흠 윤지웅 윤진효 최규형 이상식 윤철희 김재훈 송현우 이승수 이재성 하태수 박대규 윤광기 조영진 구민교 김봉진 김상호 김유심 서주현 신기선 이경덕 이기석 조대근 최강렬 최용호 최은주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과

안태훈 최웅림 강민수 강창덕 김수정 김용구 강남구 고명화 김성현 김연성 김영순 김영욱 김원호 김은난 김종길 김종민 김지영 김현명 문진수 박미선 박지형 손정원 손지영 송대성 안경심 엄진기 오숙희 이미홍 이상훈 이은표 이정석 장택영 조종석 최영우 허경선

박 사

◇문학

조남호 사진실 송성욱 설순남 윤희환 이병애 임미경 권오룡 김윤섭 천미수 주경식 김선미 김선철 김영심 양상현 전호태 홍석률 강종훈 최희재 이근명 윤상철 조경만 이훈진 조성호 홍인옥 김용창 문순철 박원석 오세란 이수연 박운아 김성숙

◇철학

김영태

◇정치학

김진국 김영수

◇경제학

김재호 옥주영 이상철 이상영 박오영 신영철 이병희

◇경영학

이상만 백윤정 김연성 김수욱 이용규 전규안 지헌열

◇법학

이태종 김도현 윤영신 조경배 오기두 김재형 김종보 이종길 최홍엽 김철권

◇이학

조윤희 김병문 박진성 박현주 이태혼 전오곤 이계민 김진호 곽민곤 최제호 노홍렬 김경태 김범준 김영민 노재동 문희종 백민석 권호기 이시형 이정석 조용훈 사자드 박용선 천무영 김현구 김주현 이근우 최경석 강윤경 김동욱 장창수 이시근 이영진 정택동 송재영 강명수 정호성 문용환 안준영 이갑열 김근일 홍승호 선 웅 양갑석 조영철 한영훈 강동민 한상준 김맹기 전영신 신진수 이광식 정창식 이중원 안현숙 이헌주 김경태 이심열 노희숙 지주원 장낙한

◇약학

문형룡 이상득 이충재 신영근 박경미 이희주

◇공학

한수영 이희영 길유성 문순원 김영태 서동한 조규섭 황윤성 김병윤 송용진 이세희 이병주 박동선 길용석 손동기 신수호 유영은 장영수 황성호 나병철 강지윤 김우정 이영환 박상근 이수일 정 윤 이용구 김훈태 백장현 장진태 허홍석 김기동 박창규 김성태 이재환 박승구 이호상 김재경 최경세 허수형 홍석경 강영석 김진상 방 욱 이기춘 정태주 황기현 정영수 신원기 조진영 이부경 이종운 강준호 유건선 강효랑 김영석 배동진 김수길 최홍석 도현호 박용환 심동준 이병윤 이태홍 이상연 서보석 김병성 한용인 문 용 이대룡 이정규 한석원 이승준 최윤락 이한진 이준표 이성룡 곽종원 박영하 안상섭 이명규 박장호 심승보 정운용 한경제 이승현 김상구 류성호 장세봉 김동현 안민주 이호근 이수창 정석영 이상현 최정열 주 현 채종현 김일욱 서정철 오형석 이기백 이연수 정진석 구경훈 박찬식 윤명곤 이창수 양수미 차재혁 하은용 김나리 신병석 이송이 이인한 최윤희 김한중 김기복 류영선 송대빈 임용택 윤근영 이유직 김경대 성현찬 강동진 김영환 조용현 이양주

◇농학

김현순 이응호 송기환 장인옥 양태진

홍경낙 손석규 김 균 인만진 박시형
송상익 오세량 김혜영 신중한 김순영
신재익 정기홍 오성종 김현섭 전기홍
김병섭 윤종철 정영진 강민형

◇교육학

김진모 신명철 이문영 김정일 유귀옥
김대희 김민호 김봉환 성기선 김정원
유정이 이지호 강양현 김공대 염정용
황보영식 한경자 강철성 강운선 권정화
송재범 장혜원 김남희 유준희 전영석
이면우 이양락 조기정 장용규 정영린
채관석

◇수의학

김철규 윤영민 이종권 정상희 김병선
엄기동 나기정 이영원

◇의학

정원용 김동윤 김성수 김하영 임 용
강경훈 김기수 홍석근 류인균 엄재호
이명용 최두석 한재진 김기철 김동현
김선민 김성준 박원서 성연선 안치석
오승하 오영륜 이계영 이현경 정해정
한혜경 강웅구 김원중 김정선 박경주
박승우 박일환 서창인 오동진 윤영희
윤익진 은길상 이원돈 장윤실 정숙향
하은주 국진아 김보현 김성훈 김용민
김윤근 박경덕 박재현 박진영 유범희
유인규 윤정환 윤혜경 이영일 이재서
이중서 이진호 정필상 채인호 최은영
최인철 최형석 허주령

◇간호학

유재순 임숙빈

◇치의학

임종수 박영주 전순실 최세원 곽난희
김경현 심상균 김원경 민기주 엄태완
엄홍식 오목훈 유준상 이기웅 이삼선
이진구 장미경 정문섭 주성채 진보형
최규원 최현배 고은숙 구 영 김은숙
명재원 박영욱 백승학 서현석 신현철
이우현 임병목 장경수 국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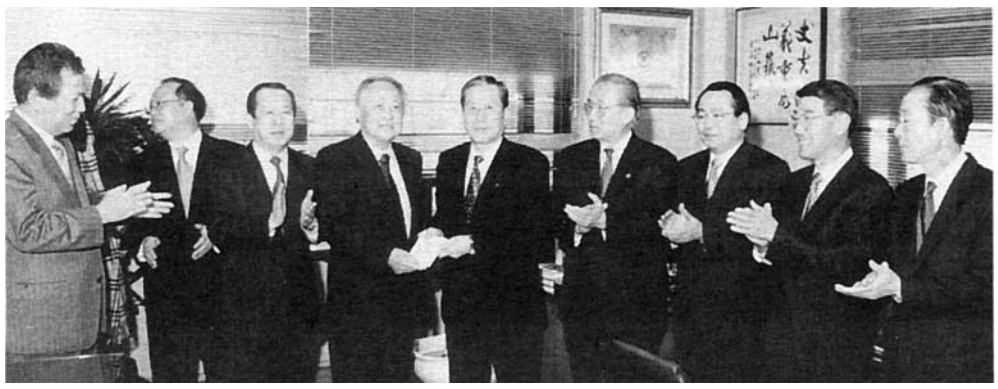
◇보건학

박영주 이우천 신용철

◇행정학

김기천 송미령

동창회 국민카드 96년도 사업 결실
기금 8천8백40만4천여원



국민카드 李淇鎔사장이 본회 金在淳(좌로부터 네번째)회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본회는 지난 2월 18일 동창회관에서 국민카드사(사장 李淇鎔)로부터 동문들이 발급받아 사용한 결실로 모인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의 장학기금 8천8백40만4천9백98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94년 9월부터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을 대상으로 발급해 온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는 지난 2월말까지 1만 2천3백좌에 달한다.

앞으로도 동문 및 가족,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97년 1월 1일 ~ 1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송혁준85 ▲안중민91

◇社會科學大學

▲박대현95 ▲박수용88
▲손창수92 ▲정재창95

◇自然科學大學

▲김상균96 ▲김종욱96
▲김현철88 ▲문진호92
▲민승기95 ▲윤상수94
▲이상호93 ▲정문철95
▲지광재92 ▲진미혜88
▲최영만96 ▲홍지영96

◇經營大學

▲김동진85

◇工科大學

▲강민수96 ▲강택진96
▲구재진74 ▲김관형83
▲김연규96 ▲김임수67
▲김재순96 ▲김종은93
▲김주열95 ▲김주용91
▲김태균96 ▲노경윤95
▲류성룡96 ▲박종범96
▲박준호88 ▲성진환95
▲안현식95 ▲양인환91
▲오성남93 ▲윤성환96
▲이관철90 ▲이동한92
▲이동현96 ▲이병모94
▲이상주96 ▲이성도96
▲이수복94 ▲이재형92
▲이홍욱94 ▲임승현96
▲전용준96 ▲정광옥96
▲조양래64 ▲조지영96
▲최정식96 ▲홍영희58
▲황재훈96

◇農科大學

▲박기홍95 ▲이성구68
▲이치섭62 ▲정승규93
▲제연호90 ▲지명수85
▲최성준96

◇文理科大學

▲김동필68 ▲신현웅68
▲이종명58 ▲조 만57

◇美術大學

▲김선엽88 ▲윤형규63

◇法科大學

▲김원형96 ▲소칠룡72
▲손동규95 ▲이인기78
▲조병선61 ▲최희준59

◇師範大學

▲김정하95 ▲김현중73
▲박진균96 ▲박흥일64
▲배봉춘69 ▲이무일70
▲임영권95

◇商科大學

▲이정식73 ▲정재창64

◇藥學大學

▲김충경69 ▲이재욱95
▲정우현79 ▲허 백57

◇音樂大學

▲김연경89

◇齒科大學

▲이준기59

◇經營大學院

▲이승주95

◇新聞大學院

▲안성균73

◇行政大學院

▲배문환65 ▲배양일76

◇環境大學院

▲최희주96

◇국가정책과정

▲박성득20

◇고급금융과정

▲민찬기3